

기후위기 대응 아동권리옹호 토론회

기후위기와 아동권리, UN에 전하는 우리의 목소리

일시 2022년 4월 20일 (수) 14:00-16:00

장소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실

기후위기 대응 아동권리옹호 토론회

기후위기와 아동권리, UN에 전하는 우리의 목소리



기후위기 대응 아동권리옹호 토론회

기후위기와 아동권리, UN에 전하는 우리의 목소리

일시 2022년 4월 20일 (수) 14:00-16:00

장소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실



기후위기 대응 아동권리옹호 토론회

- 기후위기와 아동권리, UN에 전하는 우리의 목소리 -

- 일 시 : 2022년 4월 20일 (수) 14:00-16:00
- 장 소 :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실
- 일 정

시 간	주요내용
13:30-14:00	사전 준비 및 접수

사회 : 고완석 팀장 (굿네이버스 아동권리옹호팀)				
1부. 개회 및 기조강연과 안내	14:00-14:03	인사말 (10분)	양의원영 국회의원	
	14:03-14:06		김웅철 사무총장 (사회복지법인 굿네이버스)	
	14:06-14:10		이혜진 사무총장 (한국아동단체협의회)	
	14:10-14:30	기조강연 (40분)	“기후위기와 아동권리” - 한성훈 교수 (연세대 국학연구원) -	
	14:30-14:50		“기후위기가 아동·청소년에게 미치는 영향” - 최우리 기자 (한겨레 기후변화팀) -	
	14:50-15:00	안 내 (10분)	UN아동권리위원회 제26호 일반논평 채택과정 - 윤석빈 부소장 (한국아동단체협의회 CRC연구소) -	
	좌장 : 한성훈 교수 (연세대 국학연구원)			
2부. 종합토론	15:00-16:00	종합토론 (60분)	김유림 전라북도 꿈드림 청소년단 대표 김은서 굿네이버스 아동권리모니터링단원 박강은 굿네이버스 아동권리모니터링단원 최진원 굿네이버스 아동권리모니터링단원 김수아 대한민국 아동총회 18기 분과위원 류새봄 대한민국 아동총회 18기 의장 조성일 대한민국 아동총회 18기 부의장	

16:00	폐 회
-------	-----

| 목 차 |

	[인 사 말]	9
	양이원영 국회의원	
	[인 사 말]	10
	김웅철 사무총장 (사회복지법인 굿네이버스)	
1부.	[인 사 말]	12
개회 및	이혜진 사무총장 (한국아동단체협의회)	
기조강연과	[기조강연 1] 기후위기와 아동권리	15
안내	한성훈 교수 (연세대 국학연구원)	
	[기조강연 2] 기후위기가 아동·청소년에게 미치는 영향	29
	최우리 기자 (한겨레 기후변화팀)	
	[안 내] UN아동권리위원회 제26호 일반논평 채택과정	39
	윤석빈 부소장 (한국아동단체협의회 아동권리협약연구소)	
	[토론 1]	49
	김유림 전라북도 꿈드림청소년단 대표	
	[토론 2]	51
	김은서 서인권역 아동권리모니터링단원 (성보중 3학년)	
	[토론 3]	55
	박강은 영남권역 아동권리모니터링단원 (동주여중 3학년)	
2부.	[토론 4]	59
종합토론	최진원 전북권역 아동권리모니터링단원 (전주만성초 5학년)	
	[토론 5]	63
	김수아 18기 아동총회 분과의원 (남천중 1학년)	
	[토론 6]	69
	류새봄 18기 아동총회 의장 (반송여중 3학년)	
	[토론 7]	74
	조성일 18기 아동총회 부의장 (부경고 1학년)	
부 록	[부 록]	81
	‘기후위기와 아동권리’ 온라인 설문조사 결과	

| 인사말 |



반갑습니다.

바람과 해를 담은 정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양이원영입니다.

지구 종말까지 남은 시간 단 100초, 시카고대학의 과학자들이 인류가 핵무기와 기후변화로 인한 위험에 얼마나 노출되어 있는지를 알리는 지구 종말 시계(The Doomsday Clock)의 현재 시각입니다.

기후위기의 심각성이 날로 심화되며 이제는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기후위기는 폭염, 가뭄, 홍수 등의 자연재난을 더욱 빈번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한 피해는 우리의 일상생활에 어느덧 가깝게 다가왔으며, 미래 우리 아동들의 삶을 결정하게 될 중요한 문제입니다. 기후위기로 발생한 피해를 기후변화에 아무런 책임이 없는 아동들이 온전하게 떠안게 되는 것입니다.

지난 2020년,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10년 내 최악의 홍수가 발생했습니다. 이로 약 90만 명의 수해민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학교는 문을 닫았고, 수인성 질병 유행과 식량 수급 불안이 발생했습니다. 이러한 위기는 아동들에게 더욱 큰 위기로 다가옵니다.

이처럼 기후위기로 인한 재난은 유엔아동권리협약에 명시된 아동의 영양 및 건강권, 교육권, 사회보장권, 보호권 등을 종합적으로 침해받는 상황입니다. 아동의 권리를 침해하고, 더 나아가 성장을 방해하는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우리 모두의 노력이 절실한 시점입니다.

오늘 함께한 아동들은 기후위기의 가장 중요한 당사자입니다. 그러나 정책결정 과정에서는 아무런 의견을 내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오늘 이 자리가 우리 아동들의 목소리가 반영된 미래 정책이 만들어질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저도 국회의원으로서 소중한 목소리를 경청해 기후위기를 극복하고, 아동들에게 행복한 미래를 물려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2022년 4월 20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양이원영

| 인사말 |



4월 22일 ‘지구의 날’ 을 앞에 두고 이렇게 국회에서 <기후위기 대응 아동권리옹호 토론회>를 주최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먼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다양한 의정 활동을 적극적으로 펼치고 계시고 오늘 이 자리를 마련해 주신 양의원영 국회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아동들이 살기 좋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오늘 이 자리를 함께 준비한 한국아동단체협의회 이혜진 사무총장님께도 감사드리며, 기조 강연으로 함께 하시는 연세대 국학연구원 한성훈 교수님과 한겨레신문 최우리 기자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특별히, 대한민국 아동들을 대표하여 이 자리에 참석한 김유림 아동, 김은서 아동, 박강은 아동, 최진원 아동, 김수아 아동, 류세봄 아동, 조성일 아동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토론회의 주인공은 우리 아동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아동들의 경우 <굿네이버스 아동권리모니터링단 ‘Good motion’ >, <대한민국 아동총회> 등에 소속되어 평소 아동권리 증진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는 점에서 더욱 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나날이 심각해져 가는 환경오염은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를 병들게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8월 UN 산하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 에서 발표한 ‘IPCC 제6차 보고서’ 의 첫 번째 파트인 ‘기후 변화에 관한 과학 기반 보고서’ 의하면 지구 평균온도는 산업화 이전보다 1.09° C 상승했으며 온실가스 농도, 해수온 상승, 빙하 손실 등 이미 지구에서 나타난 중요한 징후들이 위험수위에 도달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아울러, 현재의 추세가 지속된다면 2040년 ‘1.5° C 온난화’ 의 마지노선을 넘게 되고, 이 경우 상상을 초월하는 재난이 초래될 것이라고 경고하였습니다. 특히, 해당 보고서에서는 ‘기후위기는 불가피하고, 전례 없으며, 되돌릴 수 없다’ 며 이러한 위기를 초래한 장본인은 인간임이 ‘명백하다’ 고 강조하였습니다.

이러한 기후위기는 인간의 일상을 위협하고 있으며 특히 그 피해는 상대적으로 취약한 아동들에게 더 크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유엔에서는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에 앞서 전 세계 22억 아동의 99%가 폭염, 태풍, 홍수, 가뭄, 대기오염, 납 중독을 포함해 적어도 한 개의 환경 위협에 노출되어 있다고 발표하였으며 아동권리위원회 역시 대기오염, 수질오염, 독성물질 노출 등 환경 피해로 인해 매년 5세 미만의 아동 150만 명 이상이 사망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지난해 유엔아동권리위원회 오타니 위원장은 ‘기후위기는 아동권리 위기’ 임을 언급하며 ‘아동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환경에 대한 권리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으며 스웨덴의 환경운동가 그레타 툰베리 역시 기후위기로 가장 큰 영향을 받을 사람과 그 결과로 인해 가장 큰 고통을 받을 사람들은 아동들이라며 전 세계 사람들에게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동참할 것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굿네이버스에서도 ‘건강한 지구환경은 아동권리 보장의 첫걸음’ 임을 인식하며 기후위기 대응이야말로 아동권리 보장을 위한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중요한 실천임을 강조하는 < ‘우리가 그린(Green) 지구’ 프로젝트>를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아동권리 보장을 위한 친환경 활동을 전개하는 한편 지구환경의 주인인 아동들이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정책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옹호하는 다양한 활동들을 전개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토론회는 < ‘우리가 그린(Green) 지구’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우리 아동들이 건강한 지구환경에서 지낼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하는 소중한 자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유엔아동권리위원회에서는 우리나라를 포함한 각 회원국 아동들의 목소리를 취합하여 <일반논평 제26호 ‘기후변화에 중점을 둔 환경과 아동권리’>를 작성하여 발표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습니다. 오늘 토론회에서 논의된 모든 내용은 대한민국 아동들의 의견을 대표하는 것으로 영문으로 번역 후 유엔아동권리위원회에 전달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굿네이버스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아동권리 증진 활동에 앞장서겠습니다.

오늘 토론회를 통해 아동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삶을 누릴 수 있는 지구환경에 대한 깊은 고찰이 이루어지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2022년 4월 20일

사회복지법인 굿네이버스 사무총장 김웅철

| 인사말 |



마음 놓고 숨쉬기 두려운 시대

전 세계의 아동 대부분이 기후변화의 악영향을 받는다는 보고서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기후위기는 아동의 위기입니다.

아동의 위기 속에 오늘 ‘기후위기와 아동권리’를 주제로 아동참여토론회를 양의원영 국회의원님과 굿네이버스와 함께 주최하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바쁜 의정 활동 중에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펼치시며 오늘 토론회의 자리도 마련해 주신 양의원영 의원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기후변화로 인한 질병의 88%가 아동에게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런 위기에 노출된 아동의 수는 폭염 8억 2천만 명, 물 부족 9억 2천만 명, 대기오염 20억 명으로 기후위기의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아동은 신체적으로 성인보다 취약하고 환경의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기후위기로 더 큰 위협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전문가들은 극심한 기후변화가 아동이 마땅히 누려야 할 권리마저 빼앗는다고 지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한성훈 교수님과 최우리 기자님의 기조강연은 기후위기로 아동이 마주하게 될 위협과 피해에 대하여 듣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위협과 피해에 대한 이야기를 외면할 수 없는 지금의 현실이기에 우리는 오늘 기후위기와 아동권리에 대한 당사자들의 목소리를 듣고자 합니다.

스웨덴의 청소년 기후 운동가인 그레타 툰베리는 기후변화를 현재의 위기로 받아들이고 오늘날 아동들이 살기 좋은 지구를 상속받을 수 있도록 긴급하게 행동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오늘 토론회에 대한민국 아동총회를 대표하여 참여한 김수아 아동, 류새봄 아동, 조성일 아동 그리고 전라북도 꿈드림 청소년단 김유림 아동과 굿네이버스 아동권리모니터링단 Good motion의 김은서 아동, 박강은 아동, 최진원 아동에게 따뜻한 감사의 말을 전합니다. 오늘 참여한 아동대표들은 일상생활에서도 아동권리 증진을 위해 모니터링 및 캠페인 활동을 펼치고 있는 아동 운동가입니다. 권리의 주체로서 인권감수성을 가지고 활동하는 당사자이기에 오늘의 주인공은 여러분입니다.

지난해 유엔아동권리위원회에서는 각 회원국 아동들의 목소리를 취합하여 <일반논평 제26호 기후변화에 중점을 둔 환경과 아동권리>를 발표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이에 오늘 토론회에서의 의견은 대한민국 아동대표들의 의견으로 유엔아동권리위원회에 전달될 것입니다. 기후위기와 아동권리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을 가감 없이 얘기해 주길 바랍니다.

아울러 아동이 살기 좋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늘 함께하며 오늘의 뜻깊은 토론회 개최를 위해 애써주신 굿네이버스 김웅철 사무총장님과 실무자분들에게도 감사드립니다.

2022년 4월 20일

한국아동단체협의회 사무총장 이혜진

기조강연 1

기후위기와 아동권리

한성훈 교수 (연세대 국학연구원)

기후위기 대응 아동권리옹호 토론회
기후위기와 아동권리, UN에 전하는 우리의 목소리

기후위기와 아동권리

- 자연권과 인권 그리고 민주주의의 위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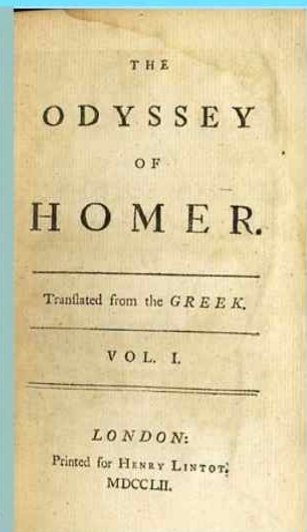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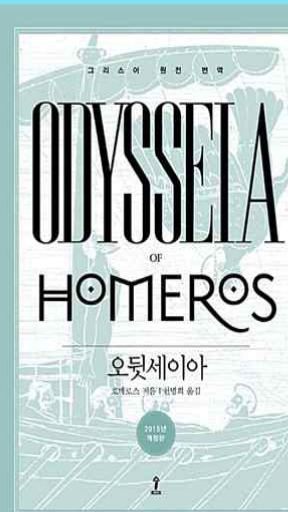
2022. 4. 20(수)

연세대학교 국학연구원

한성훈

호메로스, <오디세이아>

“과거와 현재는
자기 앞쪽에 있는 것이므로
보는 것이 가능하지만,
보는 것이 불가능한 미래는
등 뒤에 있다.”



목 차

- 아동의 권리
- 유엔아동권리협약의 의미
- 한국 아동권리협약 이행
- 아동복지법
- 인권: 인간중심주의 세계관의 특징
- 기후위기와 생존권
- 시사주간지 TIME
- 사람의 몸과 지구의 자연현상
- 자연의 권리
- 에콰도르 헌법
- 아동중심의 기후위기 대응 방안
- 미래에 대한 결정과 기후위기

아동의 권리

유엔아동권리협약(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아동은 “특별한 보호와 도움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천명한 유엔 세계인권선언을 상기한다.”
아동에 대한 특별한 보호의 필요성은 1924년 아동권리에 관한 제네바선언과 1959년 11월 20일 유엔총회가 채택한 아동권리선언에 명시되어 있으며 세계인권선언,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특히 제23조 및 제24조),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특히 제10조) 및 아동의 복지와 관련된 전문기구와 국제기구의 규정 및 관련문서에서 인정되었음을 유념한다.

아동권리협약은 1989년 11월 20일 유엔총회 채택, 1990년 10월 2일부터 국제법으로서 효력 발생
대한민국 적용일 1991년 12월 20일

아동의 권리

아동권리협약에서 보듯이 아동은 출생 이전부터 아동기를 마칠 때까지 적절한 법적 보호를 비롯해 특별한 보호와 배려가 필요하다.

세계의 모든 국가에는 매우 어려운 상황에서 생활하는 아동들이 있으며, 이 아동들을 특별히 배려해야 함을 인정한다.

아동의 보호와 조화로운 발달을 위해 각 민족의 전통과 문화적 가치의 중요성을 충분히 고려하고, 모든 국가, 특히 개발도상국 아동의 생활여건 향상을 위한 국제협력의 중요성을 인정한다.

유엔아동권리협약의 의미

전세계 196개국(2021년 1월 기준)이 비준한 국제협약으로 가장 많은 비준국가를 보유한 국제인권법이다. 영국, 캐나다, 스웨덴, 노르웨이 등의 선진국가와 그 지방정부는 이미 그들의 법과 제도, 정책, 교육과 문화에 유엔아동권리협약의 가치를 녹여내기 시작하였다.

우리나라는 아동인권의 가치가 국가와 지역사회, 학교, 더 나아가 우리의 가정에도 녹여져야 한다. 우리의 아이들이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함께하는 지구촌에 기여하기 위해 꼭 필요한 가치이자 기준이 유엔아동권리협약이다.

유엔아동권리협약에서 아동은 18세 미만의 모든 사람으로 정의되며, 아동은 부모의 소유나 미래를 준비하는 존재가 아닌 지금-현재 우리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존귀하고, 존엄한 존재이며, 권리의 주체자로 천명하고 있다. 그리고 아동을 폭력과 차별로부터 자유롭게 하며, 그들의 참여를 촉진하고, 아동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우리나라 아동권리협약 이행

한국은 1991년 유엔아동권리협약을 비준한 이후 현재까지 4번의 국가보고서 심의를 받았습니다. 마지막 심의는 2019년 9월에 진행된 제5-6차 심의였습니다. 차기 제7차 심의를 위한 국가보고서는 2024년 12월까지 제출되어야 합니다.

한국에서 아동에 대한 정의

우리나라에서 아동은 초등학생 또는 18세 미만의 청소년을 포함한다. 유치원에 다닐 나이에서 12~13세까지의 어린아이이며, 법률 <아동복지법>에서 정의하는 아동은 18세 미만의 사람을 이른다.

[시행 2022. 2. 18.] [법률 제18425호, 2021. 8. 17., 타법개정]

이 법은 아동이 건강하게 출생하여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아동의 복지를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① 아동은 자신 또는 부모의 성별, 연령, 종교, 사회적 신분, 재산, 장애유무, 출생지역, 인종 등에 따른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받지 아니하고 자라나야 한다.

② 아동은 완전하고 조화로운 인격발달을 위하여 안정된 가정환경에서 행복하게 자라나야 한다.

③ 아동에 관한 모든 활동에 있어서 아동의 이익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④ 아동은 아동의 권리보장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이 법에 따른 보호와 지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인권: 인간중심주의 세계관

근대 인권으로서 자연권은 태어나면서부터 당연히 주어지는, 법률이나 믿음보다 앞선 보편적 선형적 권리이다.

인권, 기본권이라고도 하는데 이것은 인간이 인간으로서 살아 나가기 위해 꼭 필요한 기본적인 권리임을 의미한다.

이 권리는 장소와 시간을 초월하여 불변적 법칙이 존재한다는 자연법 사상에 근거한다. **Natural and legal rights, 自然權 천부인권**

기후위기와 생존권

유엔의 아동권리협약

세계인권선언과 국제인권규약에서 모든 사람은 인종 피부색 성별 언어 종교, 정치적 또는 기타의 의견 민족적 또는 사회적 출신 재산 출생 또는 기타의 신분 등 어떠한 종류 구분에 의한 차별없이 동 선언 및 규약에 규정된 모든 권리와 자유를 누릴 자격이 있음을 선언하고 동의하였음을 인정

기후위기는 생존(권) 그 자체를 위협한다.
인간의 생존을 보장하려면 인권과 자연의 권리를 조화롭게 보장해야 한다.

기후위기에 대한 사상과 철학의 전환

- 사상과 철학의 전환

기후위기를 발생시키는 근본 원인과 인간의 행위에 대한 성찰이 필요하다.

- 문명이란 무엇인가?

문명이란 낱말은 18세기부터 사용되기 시작한 어휘, 축적되어온 (진보된) 인간 생활의 총체를 말한다.

인류가 이룩한 물질, 기술, 사회구조의 발전으로서 자연 그대로의 생활에 상대해 발전된 삶의 양태이다. 다르게 표현하면 과학 기술과 물질적인 측면에서 사회발전에 의해 이루어진 결과물의 전체를 문명이라고 한다.

문명에는 인간중심의 세계관이 뿌리깊게 자리잡고 있다.

인간 중심주의 세계관(사상)의 특징

- 도구적 자연관

자연의 도덕적 가치를 부정하고 인간의 욕구나 필요에 따라 평가하는 도구적, 기계론적 자연관

- 인간은 사유 능력을 지닌 유일한 도덕적 주체로 간주

자연은 인간을 위해 존재하는 도구로 여김, 인간 상호간의 의무를 인정하고 자연에 대한 의무는 부정

- 인간 우월주의 표방, 인간이 자연의 일부분이라는 자연 귀속성 부인

인간 중심주의의 문제점은 무절제한 대량 생산과 소비, 환경 용량 초과, 자연 착취와 황폐화 초래

시사주간지 TIME 1988년 선정 올해의 행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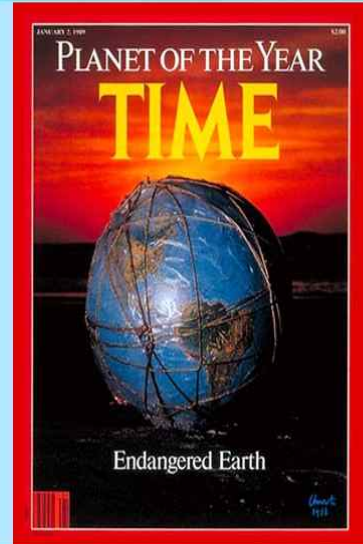
© <http://content.time.com>

- 시사주간지 타임(Time)

해마다 올해의 인물(The Man of the Year) 선정 발표

- 1988년 이례적으로 올해의 행성

The Planet of the Year 선정 발표 Endangered Earth
미국 타임지는 그 해 표지 인물로 '지구'를 선정합니다.
지구를 밧줄로 칭칭감겨 있는 모습을 실었습니다.



시사주간지 TIME 1988년 선정 올해의 행성

올 해의 행성, (멸종) 위기에 처한 지구 주인공

질문: 타임지는 왜 이 사진을 커버에 실었을까요?
여러분 어떤 이미지가 떠오릅니까?

고통받는 지구, 위험한 지구, 위기에 처한 지구,
무엇때문에 지구가 위기에 처하거나 고통을 받거나 위험에 빠졌다는 것일까요?

기후변화입니다. 인류가 오랫동안 건설한 문명(생활양식)의 결과 기후변화가 등장한 겁니다.
기후변화의 결과가 눈에 보이게 나타나기 시작한 거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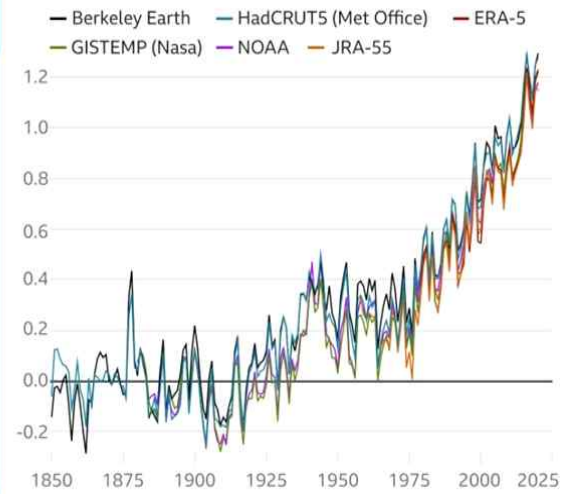
사람의 몸과 지구의 자연현상

- 의학계, 자신의 체온보다 0.5°C 이상 상승 발열 증세라고 진단
- 우리 몸은 왜 열이 나는가?
- '아프다'라고 말하는 것은 발열 증상
- 원인은 감염질환, 소화기질환, 호흡기질환, 비뇨기질환, 피부질환 등 다양함
- 그 중에서 바이러스나 세균에 의한 감염성 질환이 대부분

BBC코리아, 2021. 8. 9

Temperature rise since 1850

Global mean temperature change from pre-industrial levels, °C



Source: Met Office

BBC

1850년 이후 기온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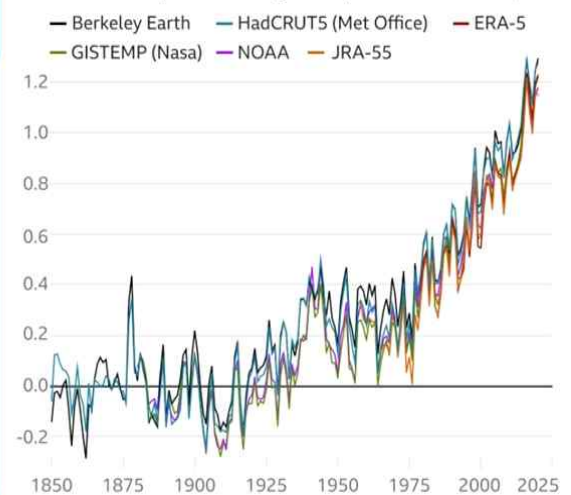
사람의 몸과 지구의 자연현상

- 의학계, 자신의 체온보다 0.5°C 이상 상승 발열 증세라고 진단
- 우리 몸은 왜 열이 나는가?
- '아프다'라고 말하는 것은 발열 증상
- 원인은 감염질환, 소화기질환, 호흡기질환, 비뇨기질환, 피부질환 등 다양함
- 그 중에서 바이러스나 세균에 의한 감염성 질환이 대부분

BBC코리아, 2021. 8. 9

Temperature rise since 1850

Global mean temperature change from pre-industrial levels, °C



Source: Met Office

BBC

1850년 이후 기온 변화

에콰도르 헌법

에콰도르 헌법 전문

“우리들은 다양성 안에서 시민적 공생의 새로운 방식과 자연과의 조화, ‘좋은 삶(el buen vivir)’에 도달하기 위하여 수막 카우사이를 건설하기로 결정했다”

헌법 제10조 “자연은 헌법이 명시한 권리들의 주체”임을 선언한다.

에콰도르는 세계 최초로 자연의 생물이 영구적으로 생존하고 번식하고 진화할 권리를 헌법에 명기했다.

자연의 권리가 헌법에 따라 보호받는데, 2011년 고속도로 건설로 훼손된 ‘빌카밤바 강’이 본래의 상태를 되찾을 권리가 있음을 인정한 판결이 내렸다.

에콰도르 헌법의 자연권

제71조

“자연은 존중 받을 권리가 있고 모든 사람과 공동체는 당국에 자연권의 이행을 법적으로 요구할 수 있다.” “생명이 재창조되고 존재하는 곳인 자연 또는 파차마마(Pachamama)는 존재와 생명의 순환과 구조, 기능 및 진화 과정을 유지하고 재생을 존중받을 불가결한 권리를 가진다. 모든 개인과 공동체, 인민과 민족은 당국에 청원을 통해 자연의 권리를 집행할 수 있다.”

제72조 자연은 파괴되었을 때 복원될 권리를 가지고 있다. 생태계를 보존하고, 환경파괴를 예방하며, 심각한 피해를 입었을 때 복구할 책임과 의무가 국가에 있다.

에콰도르 헌법이 명시한 자연의 권리는 환경권과는 차이가 있다.

환경권은 인간을 위한 권리로 인권의 일부인 데 비해, 자연의 권리는 자연 그 자체의 권리이다.

기후위기가 가져오는 민주주의 위기

민주주의를 자신의 이해관계에 따라 참여하는 어떤 정치과정으로 이해할 때, 기후위기는 이 제도를 위협하고 약화시킬 가능성이 높다.

왜일까?

아동 중심의 기후위기 대응 방안

- 법과 제도 개선

아동들이 기후위기의 위험을 평가하고 대응 방안과 계획을 세우는데 참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 중요하다.

아동이 사회변화를 일으킬 수 있도록 지원하는 법과 제도를 마련한다.

예를 들면, <아동복지법>을 개정해 기후위기를 반영하는 내용을 보완한다.

아동 중심의 기후위기 대응 방안

- 기후위기 평가에 아동 참여

아동이 거주하는 지역사회에서 기후위기에 취약한 사안을 평가할 수는 방향을 모색한다.
기후변화에 따라 발생할 수밖에 없는 영향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아동과 지역커뮤니티의 역량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한다.

아동이 지역사회의 위험 요소를 다각도로 평가하고 전체 맥락에서 평가할 수 있게 한다.
기후변화의 위험을 평가하는 사업에 참여함으로써 기후위기에 대한 체험, 실천 경험을 쌓는다.
참여과정에서 파악한 문제들을 의제로 제시하고 필요한 정책을 요청할 수 있으며 또한
대안을 제시한다.

미래에 대한 결정과 기후위기

- 기후위기에 대한 미래의 책임

조사에 참여한 아동들은 기후위기에 대한 평가 결과를 발표하고
지방자치단체와 지역커뮤니티에 자신들이 만든 실행 계획을 제시한다.

아동들이 참여자로서 지식을 쌓고 역량을 키우면, 이슈를 파악하고 자신들이 미래
에 대한 분명한 책임을 가지게 된다.

미래의 리더로서 적절한 행동을 위할 수 있는 기회가 증가하고 아동기 이후에도
이런 경험은 선순환으로 작용한다.

미래에 대한 결정과 기후위기

- 기후위기에 대한 미래의 책임

조사에 참여한 아동들은 기후위기에 대한 평가 결과를 발표하고 지방자치단체와 지역커뮤니티에 자신들이 만든 실행 계획을 제시한다.

아동들이 참여자로서 지식을 쌓고 역량을 키우면, 이슈를 파악하고 자신들이 미래에 대한 분명한 책임을 가지게 된다.

미래의 리더로서 적절한 행동을 취할 수 있는 기회가 증가하고 아동기 이후에도 이런 경험은 선순환으로 작용한다.

기조강연 2

기후위기가 아동·청소년에게 미치는 영향

최우리 기자 (한겨레 기후변화팀)

기후위기가 아동·청소년에게 미치는 영향

한겨레신문 기후변화팀장
최우리 기자

한겨레 기후변화팀

- 2020년 4월 신설. 환경, 에너지, 산업, 교육과 인권 포함 사회문제 등 기후 관련 모든 주제의 기사를 쓰는 기자 4명
- 2020년 12월 올해의 기후변화언론인상
- 2022년 2월 국가인권위원회 주관
2021년 신년기획 <기후위기와 인권> 기획보도, 인권보도상 대상 수상
- 2021년 11월 영국 글래스고에서 열린 유엔기후변화협약당사국총회(COP26) 현지 취재
- 2022년 1월 <기후변화&> 사이트 개설

기후 운동의 역사

- 1990년 기후변화에관한정부간협의체(IPCC) 1차 보고서 발행 이후 유엔기후변화협약 채택이 되면서 인류의 기후변화 대응이 본격적으로 시작
- 현재 IPCC 6차 보고서까지 나온 상황. 과학적으로 증명된 기후변화 문제는 어디까지이고 인간의 노력은 어떻게 필요한가에 대한 195개국 정부 합의.
- 1995년 2차 보고서로 기후변화가 인간의 영향임을 공식화함.
- 1997년 교토의정서를 채택하면서 선진국 중심으로 온실가스를 감축하자는 합의.

기후 운동의 역사

- 2015년 파리협정, 모든 국가들의 자발적 감축 노력 확인+산업화 이전 대비 기온상승을 2도 이내로 제한하자는 결의
- 2018년 인천 송도 1.5도 보고서 발표
- 2018년 여름께 스웨덴 국회의사당 앞에서 15살 소녀 그레타툰베리 매주 금요일마다 등교거부 시위 시작. 2019년 9월 유엔총회 발언 등 활동.
- 이후 전세계적으로 기후시위 확산
- 한국, 2019년 9월 기후시위 시작. 그해 말 청소년들 기후위기에 대응하지 않는 정부와 국회가 우리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헌법소원 청구.

최근 기후 운동의 초점

- 기존 환경 단체를 넘어 청소년, 청년들이 직접 당사자로서 기후 문제의 위기감을 발언하기 시작.
- 그레타툰베리와 함께 하는 FFF(미래를 위한 금요일, Fridays for Future). 100여개 국가 청소년들이 IT 기술에 기반한 네트워킹을 통해 활발히 글로벌 시위를 조직하고 연대하는 활동 중.

기후 세대의 탄생

- 한겨레신문 2021년 5월16일 <기후세대의 탄생, 세계의 '툰베리'들이 묻는다, 불타는 집을 바라만 보고 있나요?> 기사 중



아동과 청소년에게 기후위기란

- 기후위기의 핵심, 현재 당연히 누릴 수 있는 것들을 누리지 못할 수 있다는 불안감 미래에 대한 대비를 할 수 없다는 절망감을 이해해야 한다.
- 모두에게 평등한 자연재해 같지만 불평등의 문제가 숨겨져 있다.

인도 벵갈루루의 아차나의 삶

-2015년 3월 굿네이버스 동행 취재

-아차나(8살), 늘 엄마를 도와 물 뜨러 다님



인도 벵갈루루 아차나의 삶

- 현지 목소리/가정에서 여자 아이들은 보통 물을 뜨는 일을 하기 위해 먼 거리를 혼자 다닌다. 범죄에 노출될 수 있어 위험할 수 있고 학교에 갈 수 없다.
- 기후변화가 거창하고 삶과 관련없는 과학적 발견이 아닌 사회적 약자들부터 바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문제라는 것.
- 아동과 청소년, 특히 아차나처럼 경제사회적 지원을 받지 못하는 계층일 경우 더욱 시급.
- 기후위기로 인한 재난 자체로 아동과 청소년이 숨진다고만 생각해선 안된다. 가정과 공교육, 사회의 지원과 보호 붕괴 가능성 상승.

인도 벵갈루루 아차나의 삶

- 굿네이버스 우물사업
- 한겨레신문 2021년 3월8일자 칼럼 <비도오고 그래서> 소개



기후위기와 인권-아동, 청소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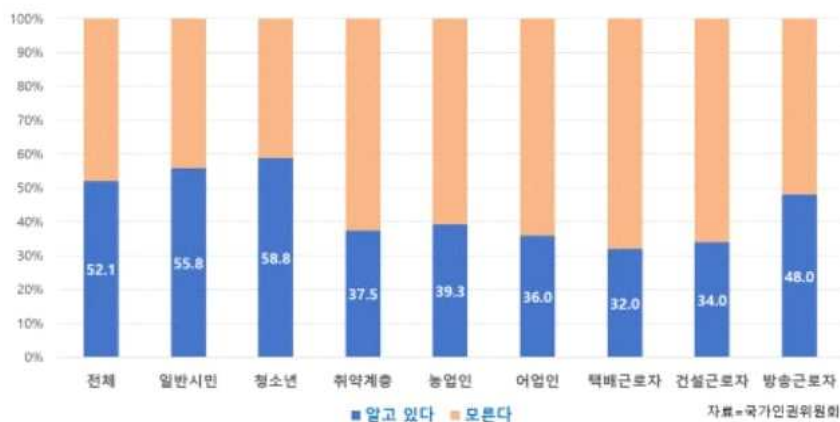
#고등학생 5명 심층 인터뷰(2020년 말)때 교육 문제 성토

- “사실 환경 문제 다 알아. 교육은 다 받았어. 그런데 방식과 결과 차이가 아쉬워. 영상 보고 강의 듣는 게 전부인데 실천하고 행동할 수 있게 도와줘야 해. 이걸 알아뉘라라는 식의 교육은 그만둬.”(정빈)
- “학생들이 어떤 걸 지루해하는지 잘 모르는 것 같아. 영상만 보여주고 강의만 하면 안 돼. 구체적으로 생각해볼길 바라. 우리도 이제 투표를 해야 하는데 올바른 정치인을 선택할 수 있는 힘을 길러주는 것도 좋겠네.”(인균)
- “중학교에서 환경 교육을 일년에 한 번이나 했나. 그 시간에 애들 다 자거든. 교육부에서 정책을 마련해야 해.”(수미)
- “나도 그 생각이야. 뉴스에서 보니 환경강사를 학교에서 부르려 해도 예산이 부족하대. 그런데 교육부가 환경 교육의 시급함을 알려나?”(보미)

기후위기와 인권-아동, 청소년

-청소년들 당사자로서 인권문제로 인식
-2021년 6~9월 인권위 인식조사

■ 기후변화가 인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습니까?(%)



기후위기의 영향-아동, 청소년

- 성인들에게도 기후위기는 인권문제
- 기본적인 인권문제 발생→주거권, 식량위기, 노동의 문제
- 청소년들에게는 미래 기후 상황 더욱 악화 +성인보다 오래 삶을 영위해야 하는 과제 중첩.
- 어떤 직업을 가져야 하는지 미래가 불안정
- 살아남아야 한다는 강박과 절박함→경쟁 심화/연대의식 약화/영화 <설국열차>

아동과 청소년의 마음으로

18살 윤현정양 청소년기후행동 활동가 인터뷰

“기후위기는 이제 막 시작되는 문제라 젠더·인종차별 등 역사가 깊은 다른 사회 운동보다는 아직 관심이 적다. 누구나 산사태를 겪지 않고 폭염때문에 죽어가지 않기 때문에 나의 문제라고 공감하지 못하기 때문에 더욱 그렇다. 그러나 다른 사회 운동이 그랬듯 기후세대의 목소리는 더욱 커질 거예요.”

아동과 청소년의 마음으로

- 복지와 노동 영역, 기후 운동의 결합 필요
- 기후문제는 결국 삶의 문제
- 이미 고통받고 있는 사회적 약자들 많지만, 그들은 복잡하고 어려운 기후문제에 대해 인식하기 보다는 자신의 처지를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는 경향 나타남.
- 이들에게 구조적 기후환경문제를 가르치는 것은 장기적 과제. 다만 복지나 노동의 영역에서 이들의 삶을 보호하고 안내하는 노력이 선행되어야 하다고 생각.

안 내

UN아동권리위원회 제26호 일반논평 채택과정

윤석빈 부소장 (한국아동단체협의회 아동권리협약연구소)

기후 변화에 초점을 둔 ‘아동 권리와 환경’에 대한 일반 논평(제26호) 논의 절차 및 일정 안내

1. 배경 및 논의 절차

1) 목표

환경과 기후 위기 영향 속 아동 권리 옹호를 위한 각국 정부의 보편적 책임 기준 마련

2) 배경

2016년 유엔아동권리위원회(CRC)는 아동 권리와 환경의 관계에 관심을 촉구하기 위한 첫 회의를 시작으로 아동의 환경 권리 의미와 이의 실현을 위한 국가 의무를 명확히 하는 조치에 대한 논의를 진행. 2021년 6월 기후 변화에 초점을 둔 ‘아동 권리와 환경’에 대한 일반 논평(제26호) 초안 작성 결정

3) 논의 절차

초안에 앞서 여러 국가의 다양한 상황에 처한 아동, 당사국 정부와 관련 분야 전문가들의 관점을 일반 논평에 반영하기 위한 작업으로 개념 노트(Concept Note)를 작성하였으며, 먼저 당사국의 의견을 구함. 2022년 3월까지 볼리비아, 캐나다, 중국, 쿠바, 에콰도르, 이집트, 프랑스, 독일, 과테말라, 이라크, 케냐, 몰타, 멕시코, 미크로네시아, 모나코, 폴란드, 카타르, 스위스, 토고 등 19개국 의견서 제출

이어, 개념 노트에 대한 아동 관련 단체와 아동들의 협의를 거친 뒤 초안 작성. 이후 초안에 대한 지역별 논의와 아동 의견 취합을 통해 2023년에 일반 논평 23호 개시 예정

[참고] 주요 논의 일정표

2021년 12월~2022년 6월	2022년 7~10월	2023년 2~3월(예정)
개념 노트	일반 논평 초안	일반 논평 26호 개시

○ 개념 노트에 대한 협의

2021년 12월 17일~ 2022년 2월 15일 : 온라인 협의 + 주제별 워크숍 [글로벌 커뮤니티]

2022년 3월 31일~ 2022년 6월 30일 : 개념 노트에 대한 어린이 및 청소년 협의

- 일반 논평 제26호 관련 아동용 홈페이지(childrightsenvironment.org) 통해 아동의 권리와 환경에 관한 광범위한 주제를 다룬 **설문 조사** 진행 중. 설문 참여는 만 18세 미만 아동 누구나 가능하며, 설문지는 14세 이하와 이상으로 구분해 제공
- 이와 별도로 2022년 4월 중 아동자문단 선정, 발표 예정

→ 아동 참여 토론회 참여 아동의 의견의 경우, 유엔아동권리위원회와 일반 논평 제26호 관련해 위원회와 협력 중인 민간 아동 단체 ‘Terre des hommes’에 각각 메일 발송해 개념 노트에 대한 대한민국 아동의 의견을 전달할 예정

○ 일반 논평 초안에 대한 협의

2022년 6~ 9월: 일반 논평 초안에 대한 온라인 협의 + 지역별 워크숍

2022년 7~10월 : 일반 논평 초안에 대한 어린이 및 청소년 의견 수렴 (설문 조사 방식)

2. 일반 논평 관련 참고 자료

1) 유엔아동권리협약(UNCRC)이란?

1989년에 채택된 유엔아동권리협약(UNCRC)은 아동 인권을 규정한 세계적인 조약. 전 세계에서 한 나라를 제외한 모든 국가에서 비준한, 역사상 가장 많은 나라가 비준한 인권 조약. 협약의 ‘당사국’은 국제법에 따라 자국 내에서 협약을 이행할 의무가 있음

2) 유엔아동권리위원회(CRC)란?

유엔아동권리위원회(CRC)는 유엔아동권리협약의 조약 기구로, 당사국이 협약에 대한 의무 이행 여부를 감시, 권고하는 18명의 전문가로 구성. 모든 인권 조약에는 당사국의 조약 이행을 감시하는 전문가 그룹 또는 조약 기구가 있음

3) 일반 논평이란?

유엔아동권리협약에 포함된 특정 조항의 이행을 위한 당사국 조치가 항상 명확한 것은 아니므로, 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 이 조항과 관련한 특정한 문제의 결과가 아동 권리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 자세히 설명하고, 이와 관련해 국가가 아동의 권리를 옹호하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 밝히고자 일반 논평을 발표. 즉, 일반 논평은 유엔아동권리협약에 대한 아동의 권리와 당사국 정부의 책임을 시대적 흐름과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정리한 구체적 해석이자 권고임. 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 2021년

4) 개념 노트(Concept Note)

/출처 UNCRRC 홈페이지

(www.ohchr.org/en/treaty-bodies/crc/concept-note-general-comment-childrens-rights-and-environment-special-focus-climate-change)

[소개]

환경 피해는 성인보다 어린이의 삶에 훨씬 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기후 변화, 생물다양성 감소, 환경 오염은 전 세계의 정치·경제 불안정 및 불평등 증가는 물론 식량·식수의 안전과 건강 및 생계에 대한 위협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토지 이용의 변화, 오염, 남획, 생태계 교란 외래종 수입 등과 같은 인간 활동은 **생물다양성의 손실**을 증가시켰습니다. 다양한 생물이 살아가는 건강한 서식지와 생태계에 의존하는 인권의 향유를 위한 이 같은 인위적 개발은 비용 중립적이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환경 악화는 ‘현재 및 미래 세대의 생명권에 대한 가장 시급하고 심각한 위협’ 중 하나로 설명됩니다.

매년 **대기 오염, 수질 오염, 독성 물질 노출 및 기타 유형의 환경 피해**로 인해 5세 미만 아동 150만 명이 사망하는 것으로 보고됩니다. 또 천식·당뇨병 및 암의 발병률 증가를 가져오고, 나아가 아동의 일생에 질병, 장애 및 조기 사망에도 영향을 줍니다. 바이러스 전염병을 유발할 수 있는 동물 간 인수공통전염병 유형의 증가가 환경 악화와 생물다양성 손실에 의한 것이라는 증거도 있습니다.

세계는 또 우리 시대의 결정적인 위기라 불리는 **기후 변화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기후 변화 위기는 현재와 미래 세대의 시민적,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를 위협합니다. 유엔인권고등판무관실은 **기후변화의 부정적인 영향이 무엇보다도 건강, 생명, 식량, 물 및 위생, 교육, 주택, 문화 및 개발에 대한 아동의 권리를 위협한다고 지적합니다.** 기후 변화는 2030년까지 말라리아와 설사병으로 15세 미만 어린이 각각 60,000명과 48,000명의 추가 사망을 초래할 것입니다. 또 기후 변화의 영향으로 영양실조로 추가로 사망하는 5세 미만 아동은 2030년까지 95,000명, 2050년까지 2,400만 명에 이를 것입니다.

또한 기후 변화에 취약한 모든 아동 가운데 특히 장애 아동, 이주 아동, 빈곤 아동, 부모와 헤어진 아동 등이 가장 큰 위협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기후 변화는 또한 기상 및 기후 위협의 빈도와 심각성을 증가시키기 때문에 자연 재해의 위협을 높입니다. 온실 가스 증가로 인한 폭

염, 가뭄 및 산불, 호우와 같은 극한 기상 현상이 잦아지고, 규모와 기간도 증가한다는 것이 과학적으로 밝혀졌습니다.

기후 변화의 영향은 전 세계적으로 나타나지만 특정한 국가에 더 큰 영향을 줍니다. 여기에는 특히 어린이, 빈곤층, 소수자, 토착민, 농촌 지역에서 일하는 농민 등이 포함됩니다. 또한 성인과 어린이, 소년과 소녀에 대한 기후 변화의 위험, 부담 및 영향이 각기 다릅니다. 극빈과 인권에 관한 특별보고관의 2019년 보고서에 따르면 기후 변화가 전 세계적으로 불평등을 악화시킬 것입니다.

[일반 논평의 범위]

일반 논평은 아동의 권리와 환경에 대한 전반적인 논의로 시작하여 더 나아가 기후 변화 위기에 초점을 맞출 수 있습니다.

전자는 환경 오염, 생물다양성 손실, 광범위한 기후 변화와 관련된 세 가지 문제를 강조할 수 있습니다. 또 세 가지 측면 모두에 초점을 맞춘 네 가지 일반 원칙(차별 금지, 최선의 이익, 생존 및 발달에 대한 권리, 아동의 관점)과 관련한 토론에 초점을 맞출 수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기후 변화에 대한 특정 주제 문제에 대한 토론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일반 논평의 범위는 또한 기후 변화에 초점을 맞춘 환경의 맥락에서 아동에 대한 세 가지 의무 즉, 실질적 의무, 절차적 의무 및 강화된 의무를 모두 포괄해야 합니다. 일반 논평은 또 기후 변화가 아동 권리에 미치는 영향을 과학적으로 알릴 것입니다. CRC는 일반 논평의 초안 작성에 있어 선택 의정서의 관련 부분과 기타 관련 국제 문서도 탐색할 것입니다.

[일반 논평의 목적]

당사국이 기후 변화에 초점을 둔 환경 문제와 아동 권리의 접근에 대한 모든 적절한 입법, 행정 및 기타 조치를 취하도록 권위 있는 지침을 제공하며, 이를 통해 특히 아래의 내용을 목표로 합니다.

- 기후 변화 (완화와 적응 포함) 및 아동 권리와 관련한 국가의 의무 범위를 명확히 합니다.
- 환경 및 기후 변화에 대한 아동 피해 대책의 시급성을 강조합니다.
- 국가의 생태계 보호, 생물다양성, 천연자원 관리 및 접근 관련 정책과 아동 권리에 대한 책임 간의 관계를 명확히 합니다. 국가와 이해 당사자는 환경과 기후 변화의 맥락에서 아동의 권리를 유지하기 위한 입법, 행정 및 기타 조치의 개선과 관련해 ‘국제 협력’, ‘법적 의무’, ‘미래 세대’, ‘세대 간 형평성’ 등과 같은 개념의 사회적·법적 등의 의미를 조명합니다.

5) 개념 노트에 대한 협의 - 설문지 구성

15세 미만 아동과 15~17세 이하 아동으로 구분해 설문을 진행. 성별과 나이, 주거 환경(주택과 도시 등) 등의 기본적인 질문에 이어 기후 변화와 아동의 삶과 지역 사회의 변화, 환경 훼손에 따른 아동의 삶이나 지역 사회의 변화, 환경 피해와 기후 변화에 대한 아동의 생각(기분 등), 환경 교육과 아동의 권리(교육권, 건강권, 정보 청구권, 깨끗한 물을 마실 권리, 청취권 등) 등을 아동의 눈높이에 맞춰 묻고 있음

6) 개념 노트에 대한 주요 나라 의견은?

○ **중국** : 일반 논평은 아동 권리를 위한 환경 보호의 중요성에 특히 초점을 두고 개발, 환경 보호, 아동 권리 등과 같은 중요한 의제 간에 적절한 균형 유지. 지속 가능한 개발의 맥락에서 빈곤 퇴치, 아동 권리 실현을 위한 식량과 깨끗한 물에 대한 권리의 강조. 유엔기후변화협약과 파리협정과 중복되지 않아야 함. 일반 논평은 당사국에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지 않고 다양한 국가 조건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함.

○ **캐나다** : 국가의 치외법적 의무의 개념을 고려하고자 한다는 점에 주목하면서, 국제인권법(아동 권리협약, 기타 인권조약, 국제관습법 포함)은 국가 관할권 밖에 있는 사람의 권리를 보호해야 할 의무를 국가에 부과할 수 없음을 강조. 기후 변화와 관련된 다자간 환경 협정 또는 기타 국제 문서에 따른 국가 의무의 해석이나 범위에 대한 견해를 제시하는 것은 위원회의 권한에 속하지 않는다고 밝힘. ‘미래 세대’와 ‘세대 간 형평성’에 주목하며, 아직 태어나지 않은 미래 세대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주장. 일부 국제 문서가 ‘세대 간 형평성’의 개념을 인정하지만 정의에 대한 국제적 합의가 없음을 강조. 단, 협약에 따른 아동의 권리와 관련 범위 내에서 이 개념에 대한 위원회의 지침을 환영.

○ **스위스** : 일반 논평의 범위에서 국가적 수준뿐만 아니라 지역적 수준에서 진행 중인 작업(예: 유럽평의회에서 진행 중인 인권 및 환경 보호에 관한 권고 초안)을 적절히 고려해야 함. 천연 자원의 남용과 자연 자원의 소멸은 재생 불가능하므로 목표뿐만 문구로서 언급되어야 함. 지속 가능한 개발과 그 세 가지 구성 요소(환경, 경제, 사회)는 특히 2030년 의제와 관련하여 텍스트에서 훨씬 더 많이 다루어야 하며, 기후 변화와 관련해 현재와 특히 미래의 문제에 대한 질문도 포함되어야 함.

토 론

- [토론 1] 김유림 전라북도 꿈드림 청소년단 대표
- [토론 2] 김은서 굿네이버스 아동권리모니터링단원
- [토론 3] 박강은 굿네이버스 아동권리모니터링단원
- [토론 4] 최진원 굿네이버스 아동권리모니터링단원
- [토론 5] 김수아 대한민국 아동총회 18기 분과위원
- [토론 6] 류새봄 대한민국 아동총회 18기 의장
- [토론 7] 조성일 대한민국 아동총회 18기 부의장

■ 토론 1



김 유 림

전라북도 꿈드림 청소년단 대표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완주군 꿈드림 청소년단과 전라북도 꿈드림 청소년단 대표로 활동하고 있는 김유림이라고 합니다. 토론회에 직접 참석하지 못하는 것이 아쉽지만, 감사하게도 영상으로나마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만큼 제가 드리고 싶었던 이야기들을 영상에 최대한 잘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이야기는 지극히 개인적인 경험으로부터 출발합니다.

저희 부모님은 두 분 다 농부십니다. 농사일은 날씨에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부모님의 일을 도우면서 저는 기후 위기를 남들보다 더 가까이 느낄 수 있었습니다. 지구온난화로 인한 기후 변화에 예상치 못한 폭우가 내려 심어놓은 들깨가 모조리 죽어버리기도 하고, 겨울이 충분히 추워지지 않아 눈이 오지 않는 바람에 겨울 가뭄이 발생하여 겨우내 자라야 할 마늘과 양파가 생기를 잃기도 했으니까요.

한 해 농사를 망쳤다는 허탈함도 허탈함이지만, 저는 이런 일들을 겪으면서 기후 위기로 인해 우리의 식탁이 위협받고 있다는 것을 생생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진심으로, 저와 같은 아동들이 살아갈 앞으로의 미래가 걱정됩니다. 기후변화로 인한 피해는 앞서 말한 식탁에서 끝나지 않을 걸 알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지구 온난화가 계속된다면, 우리는 에어컨 없이는 살 수 없게 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동시에 에어컨을 쓰면 쓸수록 지구는 더 더워지겠죠. 그렇게 되면 머지않아 북극곰과 펭귄은 어린 아이들에게 봉황이나 용 같은 상상의 동물이 될 지도 모릅니다. 옛날에는 얼음만 있는 땅이 있었는데, 거기에 새와 곰을 닮은 동물들이 살았다는 얘기를 동화처럼 들려주게 될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물론 제가 이렇게 말해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는 분도 계실 겁니다. 우리나라와 아무 상관도 없는 땅의 생물이 죽는다고 해서 나에게 당장 피해가 오는 건 아니니까, 해수면 좀 올라가도 내 집이 잠기는 건 아니니까, 식탁이 위협받는다고 해도 마트에는 여전히 먹을 것이 넘쳐나니까.

하지만 진짜 여러분의 피부에 기후 위기가 느껴지는 순간, 우리가 북극곰이 되는 순간, 인류의 멸종이 피부에 다가오는 순간은 이미 늦은 것이고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는 때입니다. 지금이 바로 지구를 살릴 수 있는 골든타임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나 지금, 불행히도 앞으로의 미래를 살아갈 우리 아동들은 당사자임에도 할 수 있는 게 매우 적습니다. 우리는 법과 규제를 만들 수 있는 힘도, 누군가를 재판해 벌을 줄 수 있는 힘도 없습니다. 아동이 할 수 있는 일은 기껏해야 이렇게 말하고 외치는 것뿐입니다. 그리고 그마저도 잘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어린 애가 하는 말이니까요.

사실 지금 이렇게 말을 할 때도, '내가 어려서 잘 모르나본데' 라는 말을 들을까 두렵습니다. 어른들은 다음 세대들의 의견도 중요하다고 말하지만, 늘 저는 제 발언이 몇몇 사람들에게겐 구색맞추기용 악세서리로 쓰이는 것 같은 기분을 지을 수 없었거든요.

하지만 이번만큼은, 여러분이 제 이야기를 유심히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동들에게는 대한민국의 사계절을, 북극곰을, 펭귄을, 벚꽃을 눈에 담을 권리가 있습니다. 우리 땅에서 건강하게 자라난 작물을 먹을 권리가 있습니다. 이 외에도 깨끗한 환경으로부터 얻을 수많은 권리가 있습니다. 이 권리들은 어른들이 반드시 보장해주어야 하는 겁니다. 어른들은 지금 아동의 미래를 담보로 지구를 대출한 거니까요.

그리고 어른들은 이미 어떻게 하면 그 권리를 보장할 수 있는지 알고 계실 겁니다. 어떻게 하면 환경을 지킬 수 있는지, 모르는 사람은 없으니까요. 하지만 알고 있거나 한 채로 행동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바뀌지 않습니다. 움직여야 합니다. 실천해야 합니다. 환경 보호에 대해 안일하게만 생각하며 미루지 말고 당장 오늘부터 해야 할 일이라고 여겨야 합니다. 더 이상 지구가 더워지지 않게, 더 이상 저희가 앞으로 살아나갈 세상이 암담해지지 않게요. 그렇게 한다면, 적어도 저와 같은 아동들이 살아갈 미래가 조금이나마 밝아질 것이라고 믿습니다.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제 이야기가 여러분들이 기후 위기에 대해 더욱 진지하게 생각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면 기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김유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김 은 서

굿네이버스 아동권리모니터링단원

(성보중 3학년)

1. 기후위기가 아동권리의 어떤 부분에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나요?

생존권에 해당하는 쾌적하게 살 권리가 미세먼지와 지구온난화로 인해 침해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산업혁명 이후 화석연료를 사용한 공장들이 늘고 화석연료가 연소하여 에어로졸과 이산화탄소 등의 대기오염물질이 증가하면서 공기가 오염되어 깨끗한 공기를 마시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 대기오염물질들로 인해 지구온난화가 진행되어 지구의 온도가 오르고 열악한 환경에 사는 아이들은 더위로 인한 피해가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동의 4가지 기본권 중 하나인 생존권을 침해한다고 생각합니다.

2. 기후위기와 관련하여 가장 걱정되는 부분은 무엇인가요?

코로나 이후 집에 있는 시간이 늘어 배달이나 택배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매우 증가했는데, 그만큼 쓰레기 배출량 또한 증가했습니다. 플라스틱과 같은 제품들을 제조하면 일차적으로 온실가스가 배출되고, 이차적으로는 쓰레기를 버릴 때 바다 같은 곳에 버려서 바다가 오염됨과 동시에 해양생물들에게 피해가 갑니다. 그리고 해양생물들이 우리가 버린 쓰레기와 미세 플라스틱들을 먹으면 우리의 몸에도 좋지 못한 영향을 끼칠 거라고 생각되어 걱정이 됩니다.

3. 일상생활에서 느낀 기후위기와 관련된 문제나 어려움이 있었다면 무엇인가요?

코로나가 시작되기 전만 해도 봄이 적어도 3주 정도였고 가을 또한 한 달은 유지되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하지만 작년과 올해는 가을이 무척 짧았고 봄은 일주일도 채 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반면 여름은 무척 길고 태양별이 뜨겁고 기온이 매년 높아지고 있습니다. 지구온난화가 진행되면서 이상 기후 현상이 눈에 띄게 나타나고 있고 이로 인해 엄청난 더위를 느끼고 우리 동네에서는 열돔현상이 일어났었기 때문에 더더욱 더위를 느꼈습니다.

4. 뉴스나 기사 등을 통해 본 문제들 중, 전 세계적으로 가장 시급한 문제라고 생각되는 기후위기 문제는 무엇인가요? 또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가장 시급한 문제는 지구의 온도가 오르는 기후변화입니다. 유엔의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지구의 평균기온이 1.07도 상승했다고 합니다. 1도 상승한 것을 결코 작다고 생각할 수 없는 이유는 조그마한 기후 변화도 지구와 생태계에는 치명적인 결과를 불러오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현재는 1.5도까지 0.43도만을 남겨두었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한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만약 남은 0.43도마저 오른다면 생태계의 균형이 깨져 교란을 겪을 것이고, 그렇게 되면 나뿐만 아니라 우리의 후손들 또한 여러 다양한 생물들을 볼 수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농작물과 가축을 키우는데 피해가 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불우한 환경에 처한 사람들은 특정 농산물을 먹지 못할 수도 있고, 애초에 모든 농수산물 식품 가격이 오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5. 현재 기후위기 위험 정도는 어느 정도의 수준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또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전혀 위험하지 않다		별로 위험하지 않다		보통이다		위험하다		매우 위험하다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checked=""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1점	2점	3점	4점	5점	6점	7점	8점	9점	10점

어릴 때는 기후와 환경 관련된 교육을 받지 않았는데, 최근 들어 기후위기에 대한 동영상이나 강의에 대해 굉장히 많이 듣게 되는 것 같습니다. 학교에서 과학 동아리를 하고 있는데 주제가 기후환경과 친환경이고, 그것들과 관련된 수업을 듣다 보니 ‘기후위기가 멀지 않다는 것을 인식시키고 미래에 해결해 나가기 위해 아이들에게 교육을 시키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동아리를 들으면서 기후변화가 정말 많이 일어나고 있고, 또 많은 영향들을 끼치고 있다고 생각되어 9점을 주었습니다.

6. 기후위기에 대한 정보를 얻을 때의 난이도는 어느 정도의 수준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또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전혀 어렵지 않다		별로 어렵지 않다		보통이다		어렵다		매우 어렵다	
<input type="checkbox"/>	<input checked=""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1점	2점	3점	4점	5점	6점	7점	8점	9점	10점

정말 쉽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대부분의 정보를 인터넷에서 얻는데, 기후위기에 대한 정보들은 단순히 ‘기후위기’ 라고만 검색해도 나오고, 또 여러 가지 학술자료들 또한 수두룩하게 나오기 때문입니다. 1점을 뺀 까닭은 다른 이유는 없고 혹시 인터넷을 하지 못한다면 다소 정보를 얻기 힘들 수도 있겠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기후위기에 대한 정보들은 인터넷에서 검색했을 때 나

오는 사이트들 중 그린피스라는 환경보호단체에서 주로 얻고 또 다른 단체나 뉴스 기사에서 정보를 얻습니다.

7. 기후위기와 관련해서 학교에서는 어떤 교육을 받았나요?

솔직히 제작년까지만 해도 그저 동영상을 보여주는 게 전부여서 흥미가 생기질 않아 그다지 좋은 교육이라고는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작년부터는 교육의 질이 굉장히 상승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연극과 여러 학습지들을 통해 여러 기후위기들 중에 하나를 스토리로 만들어 연극을 진행하였는데 유치하지만 꽤 재밌고 학습지를 풀면서 흥미가 생겨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올해부터는 서울시에서 지원을 해주어 강사님께서 오셔서 강의를 진행하니 더욱 재밌고 여러 가지 친환경적인 물품들을 만들면서 즐거웠던 것 같습니다.

8. 기후위기와 관련한 교육은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어야 도움이 될까요?

우선 기후위기가 무엇인지, 어떤 유형의 기후위기가 있는지에 대해 강의를 하고, 각각의 유형에 대해 집중적으로 이론을 알려주면서 그 유형에 대한 대책을 실습이나 탐방을 하며 흥미를 유발하여 교육을 진행해야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9. 기후위기와 관련해서 본인(또는 주변에서) 진행했던 캠페인, 활동, 생활 속 실천 등은 무엇이 있는지 설명해주세요.

작년에 굿네이버스 아동권리모니터링단에서 활동을 하며 환경을 주제로 정책제안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미세먼지 관련 정책이었고, 두 번째는 집안과 밖의 온도를 낮추기 위한 방안들을 제시하는 정책이었습니다. 일상생활 속의 실천은 카페에 텀블러를 들고 가서 음료를 받아보았고, 카페에서 받은 일회용 플라스틱 컵을 행귀 물을 마시거나 화분 등과 같은 용도로 바꾸어 써보기도 하였습니다. 또 음식물이 담겨있던 용기는 재활용할 수 있도록 깨끗이 세척한 뒤 말려서 분리수거를 해보았습니다.

10. 세계 국가들이 기후위기에 대해 어떻게 대응하고 있다고 알고 있나요?

여러 나라들이 탄소중립을 잇따라 동참했다는 것과 화석연료를 사용하지 않도록 친환경연료나 신재생에너지 발전에 대해 크게 노력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11. 기후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나(또는 아동들)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작은 습관 하나하나를 바꾸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집에서는 일회용 컵을 되도록 사용하지 말고 유리잔이나 다회용 컵을 사용해야 합니다. 그리고 쓰레기 분리수거를 확실하게 하

고 물의 오염을 줄이기 위해 비누나 세제 등을 적게 사용하고 물도 적게 사용해야 합니다. 수입되는 물품은 되도록 적게 사는 것이 좋고 온실가스의 원인인 소나 돼지를 적게 먹는 것도 기후 변화를 대비하는 좋은 습관 중 하나라고 생각됩니다.

12. 기후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기업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러 나라들이 탄소중립선언을 했듯이 기업들은 제품들의 탄소발자국 수치를 줄여가야 합니다. 탄소발자국 수치를 줄이기 위해서는 제조공장에 태양광 발전설비, 태양열 집열 시스템 등 신재생 에너지를 도입하고, 버려지는 열을 회수해 공정 라인 청소애 사용하는 등 에너지를 재활용해 효율을 높여야 합니다. 그리고 기업은 기업들이 사용하는 많은 전력들을 재생에너지로 전환하여 탄소중립에 기여해야 하며 먼저 술선수범해 탄소 배출을 줄이고, 소비자에게 저탄소 제품을 제공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13. 기후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국가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기후변화를 막기 위해 탄소 발생량을 줄이도록 해야 합니다. 선진국들은 선진국답게 탄소중립 선언의 목표를 다른 국가보다 목표를 높게 정하고 탄소 발생량을 줄일 수 있는 여러 가지 신기술들을 발명하도록 하고 화석연료를 대체할 수 있는 수소, 태양, 풍력 에너지 등 재생에너지 분야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박 강 은

굿네이버스 아동권리모니터링단원

(동주여중 3학년)

1. 기후위기가 아동권리의 어떤 부분에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나요?

저는 기후위기가 위 네 가지 권리 모두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기후위기로 부터 안전하고, 많이 배우고 놀 수 있도록 보호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가령 기후위기로 인해 농작물의 수확이 어려워지면(=식량 부족) 그것은 저희가 안전하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생존권을 침해받는 것이고, 극단적인 날씨 변화로 인해 학교 등교가 어렵거나, 여가 시간을 제대로 갖지 못한다면 그것은 저희가 충분히 배우고 쉴 수 있는 발달권을 침해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 위 세 가지 중 단 하나라도 제대로 지켜지지 못하고 보호받지 못한다고 느끼면, 어른들과 사회에게 우리의 의견을 표현하고 기후위기 문제에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권리 또한 침해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2. 기후위기와 관련하여 가장 걱정되는 부분은 무엇인가요?

대기 관련 기후 문제입니다. 대기 오염 및 온도 상승은 기후뿐만 아니라 저희에게도 많은 영향을 미칩니다. 급격한 산업화로 오염된 대기는 유독성 물질을 많이 포함하고 있으며, 이들은 어린이들의 주요 사망요인인 폐렴과 관계가 있다고 합니다. 또, 대기의 온도 상승은 지구온난화를 가속합니다. 바닷물이 얼어서 생긴 얼음인 해빙이 물로 만들어진 얼음보다 더 빨리 녹는 북극 증폭 현상은 북극을 점점 더 따뜻하게 만들며 이는 북극곰의 생명 위협과 동시에 해수면 상승으로 인간의 삶의 터전 또한 위협하고 있습니다.

3. 일상생활에서 느낀 기후위기와 관련된 문제나 어려움이 있었다면 무엇인가요?

이 또한 대기 관련 기후 문제입니다. 저는 선천적으로 기관지가 약하고, 먼지 알레르기를 앓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릴 적 봄이면 찾아오는 황사에 많이 힘들었습니다. 한참을 콜록대고 가려워 하다 병원에 가기 일쑤였으며, 미세먼지가 심한 날이면 마스크를 착용하거나 학교에서 등교 중지를 하기도 했습니다. 또, 매년 사계절이 바뀔 때마다 극심한 더위와 추위가 찾아오고, 빙하가 녹아 해수면이 상승하였다는 기사를 접할 때마다 정말 기후위기가 심각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4. 뉴스나 기사 등을 통해 본 문제들 중, 전 세계적으로 가장 시급한 문제라고 생각되는 기후위기 문제는 무엇인가요? 또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현 옷 수거함에 모이는 옷들 중 95%는 해외로 수출되는데, 매주 1500만 개가 들어오는 까닭에 절반 정도가 팔리지 않고 쓰레기로 버려진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지역 폐기물처리 시스템이 그 많은 양을 감당할 수 없어서 아무렇게나 폐기되어, 쌓인 옷들은 시장 근처에 현 옷으로 만들어진 쓰레기장을 만든다고 합니다. 하지만 막대한 양의 옷이 버려짐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계속해서 막대한 양의 옷을 생산한다고 합니다. 당장 생산을 멈추는 것이 아닌 한 번 사들인 옷을 오래 오래 입는 것이 환경을 생각하는 행동이라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5. 현재 기후위기 위험 정도는 어느 정도의 수준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또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전혀 위험하지 않다		별로 위험하지 않다		보통이다		위험하다		매우 위험하다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checked=""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1점	2점	3점	4점	5점	6점	7점	8점	9점	10점

“기후변화 정부 간 협의체, IPCC가 오늘 6차 보고서를 공개했는데, 1.5도 오르는 시기를 2021년부터 2040년 사이로 전망했습니다. 당장 올해가 될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보고서는 어떤 시나리오를 가정해도, 2040년 이전에 1.5도 선이 무너질 거라고 봤습니다. 3년 전만 해도 이 시기는 2030년에서 2052년 사이였습니다. 시한폭탄이 그새 10년이나 앞당겨졌습니다.” 지구 온난화로 인해 체결되었던 파리기후협약의 암울한 전망을 담은 기사입니다. 이 기사를 보고 난 후 기후위기 위험 정도가 정말 심각해졌다고 느꼈습니다.

6. 기후위기에 대한 정보를 얻을 때의 난이도는 어느 정도의 수준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또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전혀 어렵지 않다		별로 어렵지 않다		보통이다		어렵다		매우 어렵다	
<input type="checkbox"/>	<input checked=""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1점	2점	3점	4점	5점	6점	7점	8점	9점	10점

대부분 유튜브나 구글 등에서 기후 관련 키워드를 포함한 단어들을 입력하여 정보를 찾아보는 편입니다. 찾으려던 답변을 한 번에 찾는 경우는 거의 없지만, 검색된 기사 여러 개를 읽어보며 정보들을 종합해 보면 찾을 수 있습니다. 특히 유튜브에서는 전문가들이 운영하는 개인 채널이 활성화되어 신뢰 가능한 정보를 손쉽게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잘 나오지 않는 정보들은 책에서 찾아보는 편입니다.

7. 기후위기와 관련해서 학교에서는 어떤 교육을 받았나요?

수업 시간 외에 받은 교육은 기억이 잘 나지 않습니다. 도덕 수업에서 기후 위기 문제를 몇 번 다룬 적이 있었는데, 이 또한 기억이 잘 나지 않습니다.

8. 기후위기와 관련한 교육은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어야 도움이 될까요?

기후 위기는 이론으로만 수업을 진행하면 자칫 지루해질 수도 있습니다. 아동들이 기후 위기를 직접 느끼고 경험하여 기후 문제의 심각성을 스스로 자각할 수 있도록 영상 교육 또는 직접 체험, 실습, 탐방 수업을 진행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후 위기 관련 교육을 진행하는 외부 강사와 함께 기후 문제를 알리는 신문 기사 만들기 수업이나, 환경을 생각하는 물품들을 직접 만들어보는 수업도 좋을 것 같습니다.

9. 기후위기와 관련해서 본인(또는 주변에서) 진행했던 캠페인, 활동, 생활 속 실천 등은 무엇이 있는지 설명해주세요.

저는 여러 가지 자원봉사들을 하며 기후 위기 관련 활동을 했습니다. 1학년부터 꾸준히 우유팩 분리수거 봉사 활동을 하였으며, 우리 동네 풀 뽑기, 쓰레기 주우며 산책하기(=줍깅) 등을 하였습니다. 또, 2학년부서는 커피 찌꺼기로 여러 공예품을 만드는 커피박 공예, 버려진 양말들을 재탄생시키는 양말목 매트 만들기를 하여 환경을 생각하고, 남에게도 소소한 행복과 선물을 주며 저 또한 기분이 좋아지는 일석삼조인 활동들을 하였습니다.

10. 세계 국가들이 기후위기에 대해 어떻게 대응하고 있다고 알고 있나요?

최근 들어 여러 기후 관련 뉴스들로 조금씩 접하고 있습니다.

- 뉴질랜드 의회 : 지구온난화를 1.5도 이내로 유지하기로 약속하는 이른바 ‘탄소제로법’ 통과
- 영국 법원 : 런던 히드로 공항 활주로 증설 계획에 대해 파리 협약을 충분히 이행하지 않는다며 불법 판결
- 호주의 야당 지도자 앤서니 알바니즈 : 2050년까지 탄소 순배출량 제로를 목표로 할 것임을 발표
- 유럽연합 : 실질적이고 기술적으로 실현 가능한 방법으로 야심 차게 환경운동을 추진, 주변국들의 참여를 유도 중

11. 기후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나(또는 아동들)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큰 활동을 바라지 않습니다. 저 또한 규모가 큰 활동들은 꾸준히 해나갈 자신이 없습니다. 그러나 작은 실천이라도 많은 사람들이 꾸준히 한다면 큰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당장 우리가 간식으로 먹는 과자 봉지, 음료수 캔 등을 올바르게 분리배출하는 것과 친환경 제품을

구매하고 알리며 친구들과 함께 동참하는 것만으로도 큰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친구들과 함께 한다면 하나 둘 참여하며 앞으로의 기후 문제를 인식하고 개선해 나가야 한다는 마음가짐을 갖게 될 것입니다.

12. 기후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기업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속 가능한 에너지를 사용하고, 친환경 제품을 생산하고 권유하며 환경을 생각하지 않는 제품은 소비자들이 소비하지 않도록 생산을 줄여나가야 합니다. 또한 무분별한 대량생산을 중단하고, 소비자들이 올바른 소비 습관을 들일 수 있도록 도와야 합니다. 또한 이미 기후위기 극복을 나선 기업들의 활동들을 살펴보고, 이를 모방하여 시도해 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13. 기후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국가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세계 강대국들이 2050 탄소중립을 목표로 삼은 것처럼 다른 나라들도 탄소중립을 목표로 하고, 세계적으로 친환경 제품을 생성하고 소비할 수 있도록 돕는 기업과 단체를 더욱 알리고 지원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 자라나는 우리 아동들의 교육 과정에 기후위기 문제와 이를 자각하고 경각심을 가질 수 있도록 기후 관련 교육을 확대시켜야 합니다.



최진원

전북권역 아동권리모니터링단원

(전주만성초 5학년)

1. 기후위기가 아동권리의 어떤 부분에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나요?

저는 기후위기가 아동권리의 생존권과 보호권에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안전하고 건강하게 자랄 권리가 있는 우리가 폭염, 홍수, 대기오염 등 여러 가지 기후위기에 노출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 우리는 해롭게 하는 모든 것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가 있지만 캐나다 메모리얼대학 연구팀에 따르면 기후변화로 인한 질병의 88%가 아동에게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한다고 했기 때문입니다.

2. 기후위기와 관련하여 가장 걱정되는 부분은 무엇인가요?

제가 기후위기와 관련하여 가장 걱정되는 부분은 빙하가 녹는 것입니다.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빙하가 녹는 건 북극곰이 살 곳이 없어지는 것이라고만 생각하지만 빙하가 녹는 건 단지 북극곰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과학자들은 북극의 빙하에는 지난 수백만 년 동안 공기 중에 퍼진 적이 없는 질병이 갇혀 있다고 하며, 일부는 얼음이 녹으며 다시 퍼질 수 있다고 예측했기 때문입니다.

3. 일상생활에서 느낀 기후위기와 관련된 문제나 어려움이 있었다면 무엇인가요?

작년에는 대파 값이 급등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저는 이 일을 통해 기후위기를 다시금 느낄 수 있었습니다. 대파 값이 급등했던 일을 뉴스에도 나올 만큼 화제가 되면 집에서 직접 대파를 길러 먹는 이른바 파테크가 유행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런 일은 대파뿐만이 아니었습니다. 햄버거에 토마토가 낀 장마 때문에 빠지는 일이 있는 등 우리 생활 곳곳에서도 기후위기로 인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4. 뉴스나 기사 등을 통해 본 문제들 중, 전 세계적으로 가장 시급한 문제라고 생각되는 기후위기 문제는 무엇인가요? 또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지구 온난화입니다. 지구 온난화가 계속되면 강한 태풍이 많이 불어 인명과 재산 피해가 더욱 커지기 때문입니다. 세계 기상기구 대변인인 클레어 누리는 지구 온난화의 결과로 앞으로 더 강력한 폭풍을 보게 될 것으로 예상했고, 마이크로소프트 창업자인 빌 게이츠는 확실히 기후 변화는 전체 생태계를 차례차례 파괴할 것이고, 그것은 세계의 일부를 살 수 없게 만들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5. 현재 기후위기 위험 정도는 어느 정도의 수준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또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전혀 위험하지 않다		별로 위험하지 않다		보통이다		위험하다		매우 위험하다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checked=""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1점	2점	3점	4점	5점	6점	7점	8점	9점	10점

저는 지금도 기후위기가 충분히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요즘은 뉴스를 틀어도 기후위기 문제가 나오고 기후위기 때문에 값이 오른 음식이나 물건도 많이 찾아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세계에서 폭염, 한파, 홍수 등 많은 기후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요즘엔 학교에서도 환경교육을 많이 실천하고 있는 것을 보며 저는 기후위기가 많이 심각하다고 생각했습니다.

6. 기후위기에 대한 정보를 얻을 때의 난이도는 어느 정도의 수준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또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전혀 어렵지 않다		별로 어렵지 않다		보통이다		어렵다		매우 어렵다	
<input checked=""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1점	2점	3점	4점	5점	6점	7점	8점	9점	10점

저는 기후위기에 대한 정보를 얻기 쉽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요즘엔 뉴스를 틀어도 기후위기 문제가 많이 나오고, 유튜브에도 요즘엔 기후위기 영상이 많이 나옵니다. 저는 이러한 기후위기 정보가 많이 나오는 까닭을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이런 기후위기 정보가 많은 까닭은 기후위기 문제가 점점 심각해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러한 문제가 더욱 많이 생기기 전까지 기후위기를 멈춰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7. 기후위기와 관련해서 학교에서는 어떤 교육을 받았나요?

과학 5학년 1학기 2단원 ‘온도와 열’ 단원에서는 ‘지구의 온도가 계속 올라가면 어떻게 될까요?’에 대해 배웠습니다. 먼저 지구의 온도가 2도 오르면 사용 가능한 물이 20%~30%가 감소하고 해수면이 7m 상승한다고 배웠습니다. 두 번째로 지구의 온도가 3도 오르면 아마존 열대우림이 파괴되고 기근으로 사망하는 사람이 1~3백만 명이 된다고 배웠고, 지구의 온도가 4도 오르면 남극의 빙하가 붕괴하고 폭염과 가뭄을 겪는다고 배웠습니다. 만약 지구의 온도가 5도 오르면 뉴욕 런던 등이 침수될 수 있고 전쟁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구의 온도가 6도 이상 오르면 모든 생물의 대멸종이 시작된다고 배웠습니다. 이외에도 학교에서는 환경교육을 많이 합니다.

8. 기후위기와 관련한 교육은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어야 도움이 될까요?

저는 기후위기와 관련한 교육은 일상생활에 기후위기와 관련된 교육을 많이 만드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학교에서는 기후위기에 대한 이론을 알려주며 실습을 하면서 기후위기에 대해 심각성을 알려주고 집에서는 기후위기에 관한 책이나 영화를 보며 기후위기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9. 기후위기와 관련해서 본인(또는 주변에서) 진행했던 캠페인, 활동, 생활 속 실천 등은 무엇이 있는지 설명해주세요.

우리 동네에서는 요즘 나무 심기 캠페인이 유행입니다. 여러 주민 단체가 꽃과 나무를 심어봐 학원 가는 길에 예쁜 꽃과 나무 들을 볼 수 있어 좋습니다. 이러 나무 심기 캠페인은 전 세계적으로 많이 알려져 있고 우리나라가 7번째로 많이 참여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캠페인을 통해 전 세계적으로 150억 개 나무가 심어졌다고 합니다.

10. 세계 국가들이 기후위기에 대해 어떻게 대응하고 있다고 알고 있나요?

파리협정 참가국들은 2050년까지 탄소 배출 중립을 달성하려고 노력 중이라고 합니다. 또, 일본은 주요 에너지를 재생 에너지로 전환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수소 에너지 보급 및 사용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자원, 산업분야에서는 플라스틱, 음식물 쓰레기, 프레온 가스를 대응하는 전략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정책 추진 과정에는 시민, 기업, 지자체 등이 다양한 주체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11. 기후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나(또는 아동들)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샤워시간을 줄이고 불필요한 전기는 아끼며 음식을 남기지 않는 것 등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소소하게 할 수 있는 행동이 지구를 기후변화의 위기에서 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지구의 온도

상승을 1.5도 보다 훨씬 낮게 제한하려면 우리는 지금 즉시 행동해야 합니다. 15분 거리에 은행, 병원, 학교 등은 차를 이용하기보다는 걷거나 자전거를 사용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12. 기후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기업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석유를 제일 많이 사용하는 사업은 바로 자동차 사업입니다. 무려 전 세계 석유의 50% 이상이 자동차 연료로 사용됩니다. 여러 자동차 기업들은 화석연료 자동차는 9000만 대 차를 판매했습니다. 하지만 전기차는 고작 120만 대를 판매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지구 환경을 망가뜨리지 않는 산업구조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러려면 하루빨리 화석연료를 포기하고 전기차를 사용해야 합니다. 자동차 기업들도 이제는 환경을 더 많이 지킬 수 있는 전기차 생산에 집중해야 합니다.

13. 기후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국가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런 문제는 전 세계에서 심각성을 느끼고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지금 당장 변하지 않으면 머지않아 인류는 큰 고통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국가들은 기후위기에 대한 법을 만들고 일회용품 대신 사용할 수 있는 대체품을 만들며 기후위기를 막아야 합니다. 지금은 큰 재앙에 출발점입니다. 사람들 한 명, 한 명이 기후위기를 위해 노력하는 만큼 지금은 국가도 기후위기를 막으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김 수 아

대한민국 아동총회 18기 분과위원

(남천중 1학년)

1. 기후위기가 아동권리의 어떤 부분에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나요?

기후위기는 아동의 발달권에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합니다. 기성세대가 아동에게 물려준 ‘기후 위기’는 현재의 아동이 직접 해결해 나가야 하는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이 우리에게 기후위기를 물려줌으로써 아동들은 자연이 인간에게 준 각종 자원을 마음 놓고 활용하기 어려워지며 이는 이전 세대에 비해 아동들이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없다는 일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전 세대는 엔진 자동차와 전기차 모두 활용하고 연구하고 탐구할 수 있지만 그에 반해 현재 또는 미래 세대는 기후위기로 인해 엔진 자동차에서 나오는 각종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해 엔진 자동차 사용을 금하고 전기차만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기후위기를 막기 위한 법률들이 재정되고 있습니다. 모든 인류는 자연이 준 자원들을 함께 사용하고 그와 함께 발전해야 하는 반면 앞선 세대들의 무분별한 자원 사용으로 인해 기후위기가 초래되고 이로 인해 뒤이은 세대들은 자연이 준 자원을 사용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아동은 자연이 준 자원들을 사람으로서, 또 자연의 일부로서 직접 활용하는 등의 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기후위기는 아동의 발달권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2. 기후위기와 관련하여 가장 걱정되는 부분은 무엇인가요?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기후위기를 잘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 가장 걱정됩니다. 알면서 모른 채하고 있거나 기후위기를 당장의 문제로 생각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도 이상기후 현상 등의 기후위기 징조를 직접 느끼고 있음에도 갑자기 닥쳐오는 재난과 달리 서서히 빠르게 다가오는 기후위기를 잘 인지하거나 대처하지 못하고 있고, 이는 강한 시련이 닥쳐왔을 때 인류는 발 빠르게 대응하지 못할 것이며 더 큰 피해를 입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 당장 기후위기가 왔고 전조를 일으키고 있는 것도 정말 위험한 일이지만, 사람들이 이것을 인지하고 대응하려는 태도를 지닌다면 우리는 기후위기를 무난히 극복할 수 있으리라 생각하고, 단합된 인류를 만들어 현재 위기를 함께 극복하고 이겨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3. 일상생활에서 느낀 기후위기와 관련된 문제나 어려움이 있었다면 무엇인가요?

여름철 에너지 소비가 가장 많을 때 전력 과잉으로 인해 블랙아웃이 되었던 것이 가장 크게 느낀 불편함이었습니다. 평소 페트병 라벨지 떼기 정도의 불편함과과는 다른 근본적인 피해가 닥쳐왔을 때를 상상하기에 충분한 경험이었습니다. 기후위기의 근본적인 원인은 우리가 사용하는 에너지원에 의한 것인데, 에너지의 전환이 없다면 전기 사용으로 인한 문명의 진행과 발전은 위기를 맞을 수밖에 없으며, 전기가 없는 원시 세상에 살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음을 알았습니다. 불빛, 승강기, 냉장고, 휴대폰 어느 하나 전기 없이 누리는 생활은 없는데, 전기가 들어오지 않는 생활은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인가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전기를 만드는 다른 대체 에너지의 개발에 몰두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으로 기후위기 대처 방법을 찾아보게 되었고, 거기서 우리는 무조건 많이 쓰는 것이 아니라 효율을 높이고 절약하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4. 뉴스나 기사 등을 통해 본 문제들 중, 전 세계적으로 가장 시급한 문제라고 생각되는 기후위기 문제는 무엇인가요? 또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시급한 문제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이미 기후위기로 인한 자연재해로 생존권이 위협받고 있는 아동에 대한 보호입니다. 그들에게 안식처를 제공하고 건강을 돌보고 교육을 통해 아동의 발달을 돕는 것이 최우선의 복구 과제입니다.

다른 하나는 기후위기에 대한 탈출의 방법을 신속히 찾아내는 것입니다. 그동안 에너지를 마음껏 쓰면서 인류 문명을 유지해온 인류에게 기후위기는 모두에게 낯선 것이 분명한 것 같습니다. “바이오매스 친환경인가 아닌가” 라는 기사(2022, 4, 1, 조선일보)를 보면 더욱 그렇습니다. 기후위기의 변화를 줄이기 위해서 합의된 개념이 명확하지 않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당장의 피해와 고통에 전적으로 도움을 주는 손길에 못지않게 근본적이고 기초적인 개념을 서로의 합의에 의해 신속히 실행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기후위기는 편파적이지 않고 계산적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탄소중립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이때, 기업 간, 혹은 단체 간의 이견 대립은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이지만 탄소중립을 목표로 하는 에너지 전환에 대한 개념 정리가 확실히 되어 신속하게 진행되면 좋겠습니다.

5. 현재 기후위기 위험 정도는 어느 정도의 수준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또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전혀 위험하지 않다		별로 위험하지 않다		보통이다		위험하다		매우 위험하다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checked="" type="checkbox"/>
1점	2점	3점	4점	5점	6점	7점	8점	9점	10점

저는 척도에서 ‘매우 위험한’ 수준이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지금 숨을 쉬지 못해서가 아니라 지금 조금이라도 숨을 쉴 수 있을 때, 위험을 인지한 바로 지금이 기후위기를 막을 수 있는 최적의 시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기후위기를 막지 못하면 되돌릴 수도 없고, 기후 위기로 인한 생활 유지가 불가능합니다. 기후 재앙 바로 전이라고 생각합니다. 기후위기의 대응에 코로나처럼 단합하고 일사불란하게 움직이지 않는 이유가 궁금할 따름입니다. 물론 코로나 대응은 개인정보 유출과 자영업자들의 피해가 있었으나 정부는 그것을 회복시키려고 했고, 사회적 합의로 모두가 마스크를 썼으며, 나라의 안보가 군비경쟁이나 경제력에 있는 것이 아니라 보건 위생에 있다는 것으로 개념이 확대되었습니다. 제일 큰 깨달음은 국가 단위의 정책이 아니라 전 세계가 공동 대응해야 하나의 바이러스도 물리칠 수 있다는 교훈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물며 환경문제라고 다를까요? 기후위기도 이렇듯 일사불란하게 국민적 동의를 얻어서 탄소 배출을 줄이는 운동을 획기적으로 전개한다면 깨끗한 공기에서 숨을 쉬고 싶다는 인류의 소박하지만 거창한 소원은 곧 달성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6. 기후위기에 대한 정보를 얻을 때의 난이도는 어느 정도의 수준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또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전혀 어렵지 않다		별로 어렵지 않다		보통이다		어렵다		매우 어렵다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checked=""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1점	2점	3점	4점	5점	6점	7점	8점	9점	10점

기후 위기에 대한 정보를 얻을 때는 ‘어렵다’ 이고, 기후 위기에 대한 정보를 제가 다른 사람과 공유하고자 설명할 때는 ‘매우 어렵다’ 입니다. 정보를 얻을 때는 이미 정보를 얻고자 하는 열린 마음이 있어서 어려운 용어나 이해되지 않는 부분을 찾아가고 스스로 이해해 보려는 노력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러나 제가 느끼는 위기의식을 가까운 가족과 함께 공유하려고 해도 쉽지 않습니다. 그들은 탄소가 눈에 보이지 않고 멀리 있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공기가 그렇듯이 에너지 지원이 늘 충분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 상황을 굳이 생각하려고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설득할 때는 과학적 지식이 아닌 그들이 제일로 소중히 여기는 것의 변화와 상실에 대해 이야기해 줄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것은 내가 알고 있는 기후 위기를 다른 사람과 공유하는 방식에는 다른 노력을 필요로 한다는 깨달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아직 여기에 대해 저는 배운 바가 없고, 혼자서 시행착오를 해야 합니다. 논의의 장이 간절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7. 기후위기와 관련해서 학교에서는 어떤 교육을 받았나요?

학교에서 개별적으로 시간을 내어 환경교육을 받아본 경험은 없습니다. 환경 과목이라든지 기후위기가 주제로 전개되고 있지 않은 것은 최근의 사례이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다만 다른 교과 시간 즉, 국어, 수학, 과학 등 다른 과목과 연계되어 비문학 지문으로 자주 등장하고 있습니다. 기후위기에 대한 경각심만큼 각 과목에서 준비해야 할 역량을 강화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신의 생각을 잘 전달하고 표현하는 방법과 논리적이고 과학적으로 생각을 전개하고 문제 해결력을 기르는 연습을 통해 기후위기에 창의적으로 대응하는 능력을 함양시킬 수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아동에게 가장 중요한 환경문제를 교과목이 아닌 동아리 같은 특색 활동을 통해 아동이 환경문제에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려는 태도를 길렀으면 좋겠고, 이러한 최근의 이슈에 대하여 좀 더 공론의 장을 학교에서 마련해 준다면 공동체가 합의하는 방법이나 캠페인의 설계와 진행에 대해 더 많은 경험을 쌓을 수 있을 것입니다.

8. 기후위기와 관련한 교육은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어야 도움이 될까요?

기후위기 각성에는 교육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교육을 크게 아동 교육과 성인교육으로 나누어 생각해 보았습니다.

학교교육은 생활 밀접형으로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절약해서 쓰는 방법을 안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에너지 절약의 알고리즘을 만들어 보는 연습을 해도 좋을 것입니다. 전기 에너지가 많을 때와 부족할 때를 알고 그것을 개인 단위로 어떻게 소비할 것인지를 연습해 본다든지 하는 것입니다. 세탁기를 돌릴 때는 핸드폰 충전을 하지 않는다든지, 전기 사용하는데 일정량의 에너지를 분배하여 사용하는 연습을 하면 어떨까 하는 것을 생각해 보고 있는 중입니다. 사물인터넷으로 모든 전자기기가 연결되고 있는 최신의 트렌드에 에너지 효율 알고리즘을 넣어 동시에 진행된다면 에너지 절약으로 탄소를 줄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된다고 봅니다. 아직 정보가 미약하지만, 전기 소모가 많을 때와 유휴 에너지가 남아돌 때 손실되는 에너지를 모으거나 저장하는 방법을 충분히 배울 수 있다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동에게 기성세대에게 발언할 기회를 많이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른들은 개발이 좋은 것이라는 신념 속에 살아오셔서 사고의 전환이 느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미 다 살아왔다고 변화에 적극적으로 동참하지 않으려는 태도를 보입니다. 이러한 어른들의 교육을 위해서는 가상 체험공간을 제공한다든지, 후손을 위한 삶의 방식에 대한 구체적인 안내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범국가적 차원에서 동시에 강제성을 띠면서 진행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9. 기후위기와 관련해서 본인(또는 주변에서) 진행했던 캠페인, 활동, 생활 속 실천 등은 무엇이 있는지 설명해주세요.

대한민국 제18회 아동총회 전국 대회에 참여하여 환경문제와 관련하여 5조 조원 분들과 결의문을 작성하고 18회 아동총회 모니터링 활동단으로서 블로그, 설문지 등을 통해 이를 홍보하고 있습니다. 결의문에는 환경교육과 관련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현재 아동의 환경에 대한 경각심 부족, 환경 교육 시설 부족 등의 대한민국 사회 문제점을 꼽아 이를 바탕으로 결의문을 작성했습니다.

또한 교내에서 진행하는 동아리 활동을 ‘생태환경’ 동아리로 선택하여 살고 있는 지역 환경(꽃, 나무 등)을 관찰하고 분석하는 등의 활동을 하고 있으며, 특히 4월 초쯤에는 매화가 개화되었을 시기이지만 장마로 인해 빨리 꽃이 저버리며 관찰하지 못하였고, 이를 통해 기후위기로 인해 꽃의 개화 시기가 점차 달라지고 있고 이는 ‘생태계 파괴로 이어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외에 페트병은 라벨을 떼고 압축하여 버리고, 스위치형 멀티탭을 사용하여 필요하지 않은 전원은 차단하여 에너지를 절약하는 등 생활 속에서 기후위기를 막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10. 세계 국가들이 기후위기에 대해 어떻게 대응하고 있다고 알고 있나요?

세계국가들은 기후위기가 인류 공동의 문제임을 인식하고 서로 연대하고 공동으로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파리기후 협약 이후로 탄소 배출을 줄이기로 합의하고 실천하고 있으며, 탄소 배출국에 대한 규제도 국제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에너지 전환의 계획으로 재생에너지 개발에 전 세계가 대륙별 연대를 만들어 협력하기도 하려고 합니다.

한편으로는 기후위기의 피해국에 대한 지원과 보상도 속시 진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인도적 차원의 비정부기관의 활동만으로는 피해 지역의 복구와 아동의 생존에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나라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아동의 문제라고 생각하는 국제적인 인식이 더욱 강조되어 아동 인권의 보호 차원에서 모든 국제기구와 국가들이 단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11. 기후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나(또는 아동들)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동의 참여권을 보장받아 더욱 열심히 기후위기를 알리고 탄소 배출을 줄이는 운동을 활발히 함과 동시에 재생에너지로의 전환하는 이 시점에 어떤 방법과 아이디어로 세상이 바뀌어가는지를 분명히 알아야 할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청정 재생에너지의 활용을 보면 더 이상 큰 발전소가 아니라 가정 단위의 소단위의 태양열에너지의 소유가 가능해 짐을 알 수 있습니다. 언젠가 닥칠 에너지 안보를 위해서도 가정 단위의 발전소 개념을 확대 적용해 보고 싶습니다. 국가 단위의 에너지 정책에는 우리 아동이 개입할 수는 없지만, 에너지 전환의 단위가 개인과 지역사회로 만

들어진다면, 우리 아동은 에너지 소비자로서가 아니라 에너지 생산자로 더욱 적극적으로 기후위기의 문제를 직접적으로 해결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12. 기후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기업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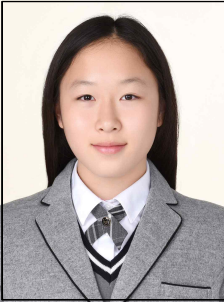
기업들이 먼저 재생에너지 사용에 필수적으로 동참하여야 합니다. 투입 대비 산출의 이윤추구 방식이 아니라 탄소를 배출하지 않는 기업으로 바뀌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는 가치 추구의 기업문화를 만들어야 합니다. 수출입에 의존하는 우리나라 경제에도 업무 계약 체결 시 재생에너지를 사용하지 않으면 수익보다 벌금이 더 큰 시대가 온다고 합니다. 경제 시스템 속에 기후위기 대응이 있어야만 기업도 살아남고 국가경쟁력도 살아날 것입니다. 그래서 탄소중립 에너지 전환으로서의 기업으로 변모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구 기반 위에 기업의 경제활동도 있고, 국가의 정치활동도 존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13. 기후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국가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국가는 국내적으로는 국민에 국가에 위임한 강제력을 동원하여 탄소를 배출하는데 중과세율을 적용하는 강력한 규제가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국민의 자발적 참여와 더불어 국민과 합의된 정부의 강한 의지가 생활 속에 개입될 때 탄소의 배출이 확연하게 줄어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단발성 캠페인이나 점진적 교육으로 위기가 돌파될 시점은 지났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국외적으로도 국제 공조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합니다. 탄소 국경세, 통상 감찰관 제도 등으로 국가 간의 교류에도 탄소배출에 비례하는 세금이 부과되는 시점에 이르렀습니다. 나라 간 이동에 탄소세가 부과되는 만큼 이동이 자유로운 것이 아니라 탄소 배출을 줄이는 방식의 소통 방법을 모색해야 할 때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우리나라가 저탄소 배출 국가 기술을 제일 빨리 보유하여 세계로 전파하는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를 위해 국가들은 전 세계적으로 협력하여 재생에너지를 발굴하고 공유하는 기술을 개발하고 상용화하는 데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류 새 봄

대한민국 아동총회 18기 의장

(반송여중 3학년)

1. 기후위기가 아동권리의 어떤 부분에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나요?

기후위기로 직접적인 피해를 받지 않는 나라의 아동들(대한민국 포함)은 잘 모를 수도 있지만, 범위를 넓혀 전 세계 아동을 대상으로 생각해 본다면 몇몇 나라들에선 생계에 영향을 끼친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즉, 생존권에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합니다. 홍수, 산불 등으로 목숨을 잃거나 다치는 아동들도 적지 않다는 기사를 많이 보았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아동들이 이런 사례들을 직접 겪어보진 않았기 때문에 심각성을 느끼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기후위기는 점점 더 심각해지고 있고 피해 아동들도 빠른 속도로 늘고 있다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로써 아직 많은 피해를 입지 않았던 나라들도 기후로 인한 피해는 더 이상 늘어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최근 기후위기의 심각성을 느낀 국민들이 많아지게 되면서 정부 측에서도 환경이나 기후에 관련된 이슈를 많이 다루고 있고, 아동 단체에서도 관련 캠페인이나 활동들을 하는 모습을 흔하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이슈가 되고 상황이 악화되는 이유는 더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길 바라고, 다양한 연령층의 국민들에게 알맞은 대안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대다수의 국민들이 기후위기를 대처할 수 있는 방안들로 알고 있는 것은 구체적이지 않고, 앞서 적혀있듯이 연령층에 잘 맞춰져 있는 내용이 없습니다. 이로써 기후위기가 더욱 악순환 된다면 미래에 더 많은 나라가 닥칠 위험성은 예상하는 것보다 많을 것이고, 아동의 생존권 즉, 생계에 끼치는 영향도 굉장히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2. 기후위기와 관련하여 가장 걱정되는 부분은 무엇인가요?

아동과 관련된 활동들을 많이 하고 있어서 인지 몰라도 기후위기와 아동을 연관 지어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소수라고 말할 순 없지만 아직 아동이 받는 기후위기의 피해 등에 대해서 언급한 것은 잘 보지 못했습니다. 사실상 가장 큰 피해자는 아동일 수도 있는데 말입니다. 아동은 아직 면역력이 부족하고 기후위기로 인해 직접적인 피해를 받는다고 해도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을 잘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그 이유로는 생활에서 기후위기 문제를 개선할 수 있는 정책들이 잘 나와 있지 않는 것도 한 부분에 분명히 속해있을 것입니다. 이로써 기후위기에 대해 설명한다

하더라도 중요성을 인지하지 못하고, 관심을 끌기엔 힘듭니다. 즉, 사회에 기후위기와 아동을 연관 지어 중요성 등을 더 알려야 할 것 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성인에 비해 아무래도 기후위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수가 얼마 되지 않을 것이고, 이렇게 대비를 하고 있지 않거나 심각성을 미리 깨닫지 못하고 생활한다고 생각해 본다면 바로 닥치는 피해가 없을 순 있어도, 이로 인해 미래에 기후위기가 더 심각해질 수도 있습니다. 아동들도 저를 포함해서 예전에 비해서는 기후위에 대해 관심을 가지는 수가 많아졌다고 생각하지만, 기후위의 심각성도 같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더 관심을 가지기 위해 모두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3. 일상생활에서 느낀 기후위기와 관련된 문제나 어려움이 있었다면 무엇인가요?

아직 우리나라에선 피해 받는 것이 크게 드러나진 않기 때문에, 아동의 입장에서 생각해 봐도 부각되어 나타나는 부분은 없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생활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과 연관 지어 생각해 본다면 학생으로서 야외(운동장 등)에서 시간을 보내는 일이 흔하고 당연한 것인데 미세먼지가 너무 심해 원래라면 운동장에서 뛰어놀며 수업하는 체육시간에 교실에서 시간을 보낸 적이 대부분이었고 점점 그 빈도가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체육관의 이용도 많이 제한되어 학생들이 신체를 쓰며 활동하는 시간들이 없어지면서 발달권의 작은 부분이 침해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더 깊이 생각해 본다면 학생은 평균 여섯 시간 정도를 의자에 앉아 수업을 듣게 되는데 약 40분 동안의 일어서서 하는 활동들조차 없어진다면 나아가 건강상의 문제도 생길 수 있습니다.

다른 문제로는 학생은 주로 교복을 착용하게 되는데 교복을 입고 생활하다 보면 자신에게 맞춰진 옷이 아니기 때문에 춥거나 더운 온도에 더 예민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또 학교에는 다수의 사람들이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온도를 맞추기 위해 여름이나 겨울에는 각각 에어컨이나 히터들을 많이 틀니다. 이런 사소한 부분으로부터 연관 지어 생각할 수 있는 것은 기후 변화로 인해 온도 차이가 더 크게 나타나 이런 기계들을 많이 사용하는 일로 인해 기후위는 더 심각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4. 뉴스나 기사 등을 통해 본 문제들 중, 전 세계적으로 가장 시급한 문제라고 생각되는 기후위 기 문제는 무엇인가요? 또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기후위기’ 라는 키워드를 검색해 보고 관심을 가지게 된다면 아마 가장 빨리 접할 수 있는 것은 지구 온난화 일 것입니다. 저는 기후위기는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고 모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중에서 지구온난화에 대해 가장 많이 언급되고 대중적인 이유가 궁금했습니다. 그리고 기사들을 찾아본 결과 정말 심각하다는 것을 바로 알 수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얻은 답은 우리 생활에 가장 밀접한 관계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지구온난화는 얼마 동안 얼마의 기온이 올라간다면 위험하다는 것이 자세히 나와있었습니다. 이런 정보들로 국민들은 기후위기의

심각성을 더 크게 알게 되고, 나아가 지구온난화가 아닌 더 많은 피해에 대해 생각을 해볼 수도 있습니다. 사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기후위기나 환경에 관련된 활동을 하여 이슈가 된 것들을 찾아볼 때면 다른 것들보다 지구온난화를 다루는 기사들이 많았습니다. 처음에는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아는 기후위기 주제가 아닌 흔하지 않은 주제를 알리며 관심을 끄는 것이 더 좋다는 생각을 했었는데, 다시 생각해 보니 사람들이 관심을 많이 가지고 얻은 지식이 많은 주제에 대해 더 흥미롭게 구체적으로 알리는 것이 좋다고 생각했습니다.

5. 현재 기후위기 위험 정도는 어느 정도의 수준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또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전혀 위험하지 않다		별로 위험하지 않다		보통이다		위험하다		매우 위험하다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checked="" type="checkbox"/>
1점	2점	3점	4점	5점	6점	7점	8점	9점	10점

매우 위험하다는 생각입니다. 요즘 크게 이슈가 되는 사건이 나오지 않는 이상 뉴스에서 다루는 내용은 대체로 기후위기나 환경이 대부분인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또 아동권리 증진을 위해 참여하는 활동들에서도 모두 기후위기에 대해 한 번씩 다루었고, 그에 따른 대책들도 마련되었습니다. 이렇게 전 세계에서 크게 관심을 가지고, 좋은 정책이나 방안들이 많이 실행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좋지 않은 상황이 곳곳에서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돌아보고 심각성을 더 크게 느껴야 한다는 의견입니다. 아동과 기후위기도 연결시켜 자세히 대책을 마련하는 것을 보아 중요도에 대해서도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현재 본인이 직접 기후위기를 직접 느끼지 않는다고 심각성 느끼지 못하고 관심을 가지지 않는 사람들도 많은데, 먼 훗날 미래를 생각해 본다면 지금도 많이 개선이 되고 있지만 더 많은 관심이 닿게 된다면 훨씬 좋아질 것 같습니다. 또, 모두가 직접적으로 참여해 의견을 내어 하루빨리 기후위기가 원활하게 풀렸으면 좋겠습니다.

6. 기후위기에 대한 정보를 얻을 때의 난이도는 어느 정도의 수준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또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전혀 어렵지 않다		별로 어렵지 않다		보통이다		어렵다		매우 어렵다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checked=""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1점	2점	3점	4점	5점	6점	7점	8점	9점	10점

제가 기후위기에 대해 처음 검색하고 찾아보았을 때와 비교해 보자면 현재는 굉장히 많은 정보들이 나와 있다고 느꼈습니다. 온 국민이 기후위기의 심각성에 대해 깨닫고, 극복하기 위해서 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도 관련 활동을 한다면 검색해서 찾아보는 편인데, 그래도 아직 기후위기를 다른 키워드(예를 들어 아동이나 노약자 등)와 함께 검색했을 때 나오는 정보는 많지 않

은 것 같습니다. 주로 국회의원들이 환경과 관련해 실행한 정책이라든지 실생활에서 기후가 변화하며 직접적으로 끼치는 영향 등에 대한 내용이 많이 보였습니다. 이로써 각자의 연령대나 위치에서 기후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더 다양한 활동들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7. 기후위기와 관련해서 학교에서는 어떤 교육을 받았나요?

기후위기에 대해 배우기 위해 따로 시간을 내서 교육을 받진 않았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과학이나 사회 시간에 관련 영상을 보고 심각성을 알 수 있을 정도로만 수업을 했고, 직접적으로 환경에 대해 다루지 않았습니다. 환경에 대한 관심이 커질수록 차츰 수업에 이 주제가 포함되겠지만 아직까지는 더 많고 좋은 질의 교육의 필요성을 느낍니다.

8. 기후위기와 관련한 교육은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어야 도움이 될까요?

현재 학교에선 창체시간 등에 영상을 보여주며 심각성을 알 수 있게 합니다. 하지만 학생들이 영상에 집중을 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 없는 일입니다. 이로써 학생들이 직접 참여하여 수업하는 토론 등의 활동이 진행된다면 스스로 정보를 취득하고 서로 물어가는 과정에서 기후위기에 이로운 시너지 효과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직접 맛닥뜨려 체험을 해볼 수 있다면 그 부분도 효과가 좋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9. 기후위기와 관련해서 본인(또는 주변에서) 진행했던 캠페인, 활동, 생활 속 실천 등은 무엇이 있는지 설명해주세요.

아동과 관련된 다양한 활동을 어렸을 때부터 하며 자연스럽게 기후위기라는 이슈에 대해 접하게 되었고 그에 따른 활동들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몇 년 동안 다른 학생들과 토의하며 정책제안문을 국회의원들에게 직접 전달한 걸로 보아 저는 환경에 대해 엄청난 관심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또, 더 이상 환경과 관련해서 악순환이 되지 않도록 실생활에서 할 수 있는 노력들을 조금씩 해나가고 있습니다. 정말 간단한 것이라도 예를 들어 대중교통 이용하기, 분리배출 잘하기 등을 실천하며 기후변화에 대해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10. 세계 국가들이 기후위기에 대해 어떻게 대응하고 있다고 알고 있나요?

기후위기가 심각한 만큼 각 국가에서 기후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정책들을 많이 만들고 있습니다. 기후위기에 대한 국가 대응에 대해 알아보니 피해를 많이 입었거나, 빨리 대안을 세운 국가들은 관련된 법률도 구체적으로 나와 있었습니다. 하지만 환경이 세계적으로 크게 이슈가 되고 있는 만큼 대다수 국가들에서 기후위기와 관련된 문제들을 심각하게 다루고 있었습니다.

11. 기후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나(또는 아동들)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기후위기는 아동들 중에서는 환경에 큰 관심이 있지 않다면 구체적으로 알기 어려운 주제인 것 같습니다. 이로써 많은 아동들에게 기후위기의 심각성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리는 게 우선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래도 심각성에 대해 먼저 알게 된다면 더 관심 있게 찾고 행동할 것 같기 때문입니다. 또 저로서는 제가 하고 있는 활동이나 위치에서 기후위기에 대한 아동의 생각들이나 목소리를 더 알렸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12. 기후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기업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기업들로부터 전해지는 메시지가 사람들에게겐 가장 친근하고 잘 와닿기 때문에 기후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많은 힘을 쏟아야 하는 곳 중에 하나일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국민들이 확실하게 기억할 수 있도록 짧은 슬로건의 느낌으로 대중에게 알리는 방안을 써도 괜찮을 것 같고, 환경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기업이라면 위에 작성했듯이 아동들이 더 구체적으로 알 수 있도록 체험 같은 것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13. 기후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국가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장 먼저 각 국가들은 현재 기후위기로 인해 피해 받은 나라들을 많이 도와주어야 합니다. 기후위기가 더욱 심각해진다면 본인의 나라도 같은 상황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국민들에게 심각성을 알리고, 관련된 이로운 정책들을 많이 만들어야 합니다. 각각 나라에서는 지금까지 나와있는 것보다 훨씬 구체적이고 연령대에 맞게 행동할 수 있는 정책들을 하루빨리 만들어야 합니다. 기후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이러한 노력들을 국가에서 직접적으로 시행한다면 더 빠른 발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조 성 일

대한민국 아동총회 18기 부의장

(부경고 1학년)

1. 기후위기가 아동권리의 어떤 부분에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나요?

기후위기는 아동 권리 전반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수질·대기 오염, 터전 붕괴, 질병 등에 있어 아동은 특히나 취약함과 동시에 살인·성폭력·납치, 조혼, 노동 착취 등의 아동 폭력으로부터 보호받아야 할 존재로, 안전권과 보호권과 관련이 있습니다. 실제로 월드비전, 영국 국제 개발 싱크탱크 ODI 공동 발간 보고서 <기후위기 관점에서 바라본 아동폭력 근절>에 따르면, △기후 위기 영향을 많이 받는 지역 상황 △기후 관련 분쟁 상황 △기후로 인한 실향 상황에서 기후변화가 아동폭력과 밀접한 연관성을 갖고 있습니다.

기후변화·환경오염 및 파괴로 인해, 또는 외부 요인으로 제대로 교육을 받지 못하거나, 제대로 설 수 없어 발달권도 침해받습니다. 이는 수많은 빈곤 국가가 앓고 있는 문제이나, 선진국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미세먼지, 산불, 가뭄, 홍수와 같은 기후 변화로 인해 야기되는 문제는 선진국에도 있습니다. 하지만 환경 문제는 모두가 함께 고민하고, 해결해 나가야 할 문제인 동시에, 큰 책임이 있는 선진국들이 특히나 힘써야 할 문제입니다.

또한 현재 사회 구성원임과 동시에 미래 사회를 이끌 아동의 참여와 생각(참여권)이 꼭 필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아동은 ‘현실’ 과 ‘돈, 명예’, ‘개발’ 등에 타협하지 않고, ‘환경’ 과 ‘지속 가능, 보전’ 등에 관심을 갖고 힘쓸 수 있는 존재로서, 아동은 기후위기의 최대 피해자인 동시에, 기후위기 해결을 위한 중요 의견 제시자이기 때문에 아동 인권은 기후위기와 맞닿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현재 여러 나라들은 ‘개발과 성장’에만 주목한 채 환경과 아동권리에 많은 관심을 보이지 않고 있고, 다국적 기업들을 비롯한 수많은 자본주의자들은 끊임없이 ‘이미지메이킹’을 하고 자신들의 배를 불리며 아동의 노동 착취와 환경 훼손을 일삼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수많은 아동들이 직간접적으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정말 문제인 것은 광산, 살충제 산업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친숙한 바나나, 초콜릿, 커피 등의 산업의 주권을 쥔 다국적 기업들이 환경과 아동들에게 끼친 악영향은 정말 상상을 초월하나 큰 제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잘 알려지지조차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회는 ‘아동을 미성숙한 존재’로 보며 아동의 의견을 잘 듣지 않고 있습니다. 그 예로는 재작년 국회, 기후위기에 따른 기업의 책임 문제를 다루는 자리에 ‘청소년기후행동’의 윤현정 활동가를 참고인으로 부르려고 했으나 청소년은 미성숙하고, 선동되기 쉽다는 근거로 무산되었던 일이 있습니다. 따라 아동 인권은 환경과 마찬가지로 국가, 기업, 사회 모두에서 여태 무시당하고, 그 신장이 가장 더디었고, 비슷한 점이 많은 주제라고 생각합니다.

2. 기후위기와 관련하여 가장 걱정되는 부분은 무엇인가요?

제가 생각하기에 기후 위기와 관련해 가장 걱정되는 부분은 ‘견잡을 수 없음’입니다. 모두가 알다시피, 기후 변화는 이미 오래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3차 산업이 시작되고, 경제 성장을 내세우며 무분별한 개발을 일삼은 탓에 환경이 파괴되고, 생태계가 망가져 갔으며,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죽어갔습니다. TV 속에 나오는 북극곰의 처량함만이 문제가 아니라, 인류를 포함한 모든 생명체들이 벼랑 끝에 서있다는 것입니다.

요즘 들어 많은 국가들이 탄소중립을 선언하는 것도 점점 이 지구의 한계점에 다 와간다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제가 숨을 쉬고 있는 지금 이 순간에도 환경 파괴와 이산화탄소 배출은 견잡을 수 없이 벌어지고 있고, 지구의 허파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도 수많은 사람들이 겉으로는 환경을 위하면서, 끊임없이 개발과 환경 파괴를 일삼아 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단지 ‘탄소중립’만을 실행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다각적인 상황에서 환경을 생각하는 제도와 정책을 펴야 하고, 환경 의식도 더 강화되어야 진정 이 기후 변화를 막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3. 일상생활에서 느낀 기후위기와 관련된 문제나 어려움이 있었다면 무엇인가요?

덥고 습함, 춥고 건조함이 뚜렷해지는 여름, 겨울이면 기후 위기를 특히나 느끼게 되는 것 같습니다. 매년 여름이면 폭염과 폭우, 태풍을 보며 기후 위기를 느낍니다.

매년 최고치를 경신하는 폭염에 학교나 학원, 상가에서는 늘 친구들이 에어컨을 18도까지 내려 환경 문제의 악순환이 벌어졌습니다. 갈수록 강해지는 폭우, 장마가 쏟아지는 날이면 뉴스에서도 여러 사건이 들려왔고, 아파트인 저희 집도 피할 수 없었습니다. 한 쪽 방에는 물이 새었고, 벽지가 허물기도 하였습니다. 늘어나는 태풍들은 집 앞 가로수 몇 개의 가지를 무너뜨리기도 했고, 나무 하나는 아예 쓰러졌던 적도 있었습니다. 다행히 인명 피해는 없었으나 정말 아찔하였습니다.

또 매년 겨울엔 한파가 문제입니다. 한파도 폭염과 마찬가지로 점점 심화되며 히터나 보일러를 실내 적정 온도보다 더 높게 설정해 환경 문제의 악순환이 벌어지고, 일회용 핫팩을 여러 개나 쓰는 모습들도 꽤나 보았습니다. 또 수족냉증을 가진 저에게 심해지는 겨울 한파는 정말 시리게 다가왔습니다.

4. 뉴스나 기사 등을 통해 본 문제들 중, 전 세계적으로 가장 시급한 문제라고 생각되는 기후위기 문제는 무엇인가요? 또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제가 생각하기에 가장 시급한 기후위기 문제는 ‘해양 온도 상승 및 해수면 상승’입니다. 남북극 빙하, 고산지대 빙하가 녹으면서 해수면과 해양 온도가 급속하게 상승하여 전 세계에 큰 타격을 주고 있고, 계속해서 줄 것입니다. 과학자들은 2100년까지 전 세계 2억 5000만 명이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고, 투발루, 몰디브, 키리바시와 같은 태평양 섬나라뿐만 아니라, 4300만 명이 거주하는 중국 해안 지역, 방글라데시에서 3200만 명, 인도에서 2700만 명이 피해를 볼 것이라고 예측되고 있습니다. 또한 인도네시아는 ‘수도’가 가라앉고 있는 상황입니다.

1980년 이후로 따지면 30억 개의 원폭과 맞먹는 에너지들이 우주로 못 빠져나가고 지구에서 계속 머무는데, 이의 90% 이상을 해양에서 빨아들이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바다는 서서히 변하고, 거대한 바다가 변화하면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해수면 상승의 원인인 기온 상승의 대부분이 해양 온도 상승 때문이며, 해양 온도가 상승하면 심해를 포함한 해양 생태계도 파괴되고 결국 인간 또한 직간접적인 악영향을 받게 되므로 많은 관심이 필요한 중대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이 해양 온도 상승에 대한 부분은 그 중대성에 비해 인식이 낮아 사람들이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았기에 이에 대한 많은 관심이 필요할 것이라 생각하고, 이와 관련한 정책들이 많이 마련되었으면 좋겠습니다.

5. 현재 기후위기 위험 정도는 어느 정도의 수준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또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전혀 위험하지 않다		별로 위험하지 않다		보통이다		위험하다		매우 위험하다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checked=""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1점	2점	3점	4점	5점	6점	7점	8점	9점	10점

현재 기후위기 위험 정도는 매우 위험(9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서 말했듯, 기후위기는 정말 한계점에 임박하였고, 따라 국가, 사회, 기업, 개인 모두의 노력과 행동이 절실합니다. 해수면 상승, 오존층 파괴, 폭염과 한파 등의 여러 형태로 나타나는 문제들에 우리도 힘을 합쳐 다각적으로 접근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아직 그러한 참여가 많이 부족한 상황이고, 환경 보전의 노력에 비해 환경 파괴 및 온실가스 방출이 급속도로 진행 중입니다. 따라 최근 들어 무수히 많은 이상 기후로 인한 사건 사고가 있었고, 매우 위험한 상황이라 생각합니다.

그래도 1점을 남긴 이유는 현재에 와서 기후위기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행동하는 사람들과 자리가 늘어났다고 생각하기 때문이고, 아직 희망을 잃지 않고 모두가 하나를 위해 힘써주길 바라기 때문입니다. 현재의 기후 위기는 비록 크고 작음이 있겠지만, 모두에게 책임이 있고 함께 연대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전염병과 치열하게 전투를 벌이고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또 그것이 우리가 이 기후위기를 ‘위기’라고 부르는 이유라 생각합니다.

6. 기후위기에 대한 정보를 얻을 때의 난이도는 어느 정도의 수준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또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전혀 어렵지 않다		별로 어렵지 않다		보통이다		어렵다		매우 어렵다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checked=""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1점	2점	3점	4점	5점	6점	7점	8점	9점	10점

기후 위기에 대한 정보를 얻을 때의 난이도는 보통(6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기후 위기를 검색하였을 때, 여러 글들과 의견, 뉴스 등을 알아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중 대부분이 기후 위기의 문제(가뭄, 홍수 등)와 사회 속에서의 기업과 지자체의 기후 위기 대응에 주목하였습니다. 예를 들면 시에서 시 교육청에서 생태프로그램을 실시한다든지, 자연기금과 기후행동 파트너십을 맺었다든지에 대한 것이 있습니다. 정부의 기후위기 대응 방안을 정리하거나 연구 자료와 함께 세계와 한국의 기후 위기 실태와 심각성, 기후위기와 그로 인해 고통받는 사람들에 대해 다루는 글이나 뉴스가 많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정말 원하는 것은 이 기후위기가 한국에선 어떤 양상으로 벌어지고 있는지, 어떤 사람들이 그로 인해 주로 피해를 보는지, 기후 위기가 진정 심각한 이유는 무엇인지, 정부 추진 기후위기에 대한 방안은 어떤 게 있는지 등이고, 이에 대한 글과 자료들이 늘어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아동들이 이해할 수 있으며, 인증된 적당한 글을 찾기가 마냥 쉽진 않다고 생각되었습니다. 적당한 자료 및 근거와 함께 기후위기를 설명하는 아동의 눈높이에 맞추어진 글을 찾긴 어려웠고, 그 글이 과연 믿어도 되는 글인지에 대한 불확실성도 있었습니다. 따라 저는 6점을 주었습니다.

7. 기후위기와 관련해서 학교에서는 어떤 교육을 받았나요?

사실 학교에서는 이런 기후위기를 잘 가르치진 않습니다. 어느 범 교육과 마찬가지로, 환경(생태) 교육 또한 일 방향적 강의나 영상물로 이론적으로만 다루는 경우가 많고, 보통 교과 시간엔 잘 다루어지지 않고 창체 시간에 교육이 이루어지다 보니 참여도 및 집중도가 저조합니다. 실제로 이 시간에 자거나 떠드는 학생들도 많이 보이며, 선생님들께서도 이를 그리 신경 쓰시지 않습니다. 기후위기 관련 교육에서 지구 온난화, 해수면 상승 등의 원인과 국가, 사회, 개인의 노력만 강조한 채, 현재 어떤 환경 정책이 이루어지고 있고, 사회나 단체 등이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지, 기후위기가 아동에게 끼치는 영향은 무엇인지 등에 대한 설명은 부족합니다. 그래서 선생님과 학생들에게 이 교육들이 늘 반복적인, 이미 다 아는, 고리타분한 내용만 담고 있다고 느껴지고, 교육의 효과도 떨어지게 됩니다. 또한 교육이 그리 정기적으로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다 보니 교육의 양과 질 모두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8. 기후위기와 관련한 교육은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어야 도움이 될까요?

기후위기와 관련한 교육은 아동들의 수준에 맞는 참여형 교육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생활 속 기후위기로 벌어진 문제 찾기, 기후 신문 만들기, 기후위기 토론하기 등 다양한 주제로 일방적인 주입식 교육에서 벗어나 직접 참여하고 알아보는 교육이 되어야 합니다. 아동들은 이에 흥미와 관심을 느끼고, 기후위기를 좀 더 와닿게 느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교과목과의 연계가 강화되어 중요하게 인식되어야 합니다. 국어, 수학, 사회, 과학 등 주요 교과목과의 연계를 강화 시켜 이를 교육한다면, 학생들이 이에 대한 중요성을 더 확실히 느끼며, 계속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또한 단순히 학교에서만 교육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지역 사회와 정부에서도 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환경 교육 및 캠페인 등을 실시하고, 활성화 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이런 교육에서도 중요한 점은 일방적인 게 아니라, 쌍방향적으로 서로 소통하고 공감하며 체험하는 형식으로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9. 기후위기와 관련해 본인(또는 주변에서) 진행했던 캠페인, 활동, 생활 속 실천 등은 무엇이 있는지 설명해주세요.

플로깅이 제일 먼저 생각납니다. 학교에서는 뒷산을 오르며 쓰레기 줍기를 하였고, 봉사 및 청소년 참여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기획하고 저희 지역 곳곳을 돌아다니며 쓰레기 줍기를 해보았습니다. 하지만 제가 실제 경험해 본 결과 학교에서 하는 형식적이고 모두가 한정된 범위에서 참여하는 플로깅이 아닌, 각자 자신의 생활 터전에서 참여하는 플로깅이 더 효과가 있었습니다.

또한 일상생활 속 실천으로는 안 쓰는 물품 중고 거래하기, 사용 후 코드 꼭 뽑기, 일회용품(티슈, 나무젓가락 등)보다 재사용 가능한 물품(손수건, 쇠젓가락 등) 쓰기, 친환경 물품(비누, 수세미, 연필 등)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간단한 생활 속 실천은 학교와 지역 사회에서 더욱 장려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예전부터 환경에 관심이 많아 식물 키우기, 환경 정책(시내 쓰레기통 설치) 제안을 해보기도 하였습니다. 시내 쓰레기통 설치와 관련한 환경 정책 제안은 비록 완전히 수용되지는 못하였으나, 어느 정도 반영되었고, 길거리 쓰레기 무단 투기에 대한 의견을 지자체에 전달할 수 있었습니다.

10. 세계 국가들이 기후위기에 대해 어떻게 대응하고 있다고 알고 있나요?

이미 1997년 교토 의정서와 2015년 파리 협정을 통해 많은 국가가 환경 문제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으나 국가 간에 환경 정책들도 차이가 많고, 국민들의 환경 의식 정도도 천차만별이라 생각합니다. 독일이나 뉴질랜드와 같은 경우는 환경 제도와 정책이 활발하고 국민들의 환경 의식도 높은 데에 비해 한국과 같이 제도나 정책, 국민들의 의식 면에서 아직은 많이 부족한 국가들도

있고, 개발도상국과 같이 환경보다는 개발에 집중하는 국가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독일이나 뉴질랜드와 같은 국가들은 전체 중 소수에 불과하고 ‘경제 발전’을 내세우며 개발도상국을 비롯해 환경 파괴를 일삼고 있는 국가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특히나 아마존과 같이 오랫동안 지구온난화를 막는데 큰 영향을 주는 자연환경을 보유한 브라질도 환경 파괴(올해 1분기 서울 면적의 1.5배를 넘는 열대 우림이 파괴됨)에 대해 큰 제재를 가하지 않은 것도 정말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11. 기후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나(또는 아동들)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동들은 재활용과 같이 일상 속에서 환경을 위한 실천을 함과 동시에 현재 사회의 구성원이자 미래 사회를 이끌어갈 존재로서 환경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탐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환경 의식을 가지고 환경 문제에 비판적인 시각으로 다가서며, 문제의식을 가지고 국가와 사회에 요구해야 합니다. 혼자서 시위를 할 수도 있고, 단체에 참가하여 목소리를 낼 수도 있습니다. 또한 기후위기로 인해 위협에 처한 아동들을 동정하고 친환경 제품을 옹호하며, 캠페인, 환경 토론회 기획 및 참석 등을 통하여 기후위기를 알리고 친환경 사회 분위기 조성하는 것에도 힘쓰는 등 많은 방법을 통해 기후위기 극복에 힘써야 합니다. 앞서 말했 듯, 기후위기와 아동 인권은 서로 맞닿아 있고, 환경 문제에 있어 아동은 빠질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12. 기후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기업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현재 기업들은 국가만큼, 아니 국가보다 더 천차만별로 기후위기를 대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기업들은 친환경 선도 기업을 서로 본받아야 하며, ESG 경영에 힘쓰고, 이윤보다는 지속가능성을 추구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무분별한 개발을 지양하며, 환경을 위하는 생산물과 기술을 만드는 데에 힘 쓰고 노력해야 합니다. 재활용 마크를 필히 부착하고 분리수거가 쉬운 제품을 만드는 것도 기업이 할 수 있는 중요한 일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다국적 기업들은 겉으로는 이미지메이킹을 하며 야기하는 환경 파괴, 아동 노동을 비롯한 노동 착취, 자본 독점을 통한 인권 침해를 멈추어야 합니다.

13. 기후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국가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국가들은 환경 사업 및 활동들을 전폭 지원 및 육성하며, 교내 기후위기 교육, 재활용 마크제, 1회용 컵 보증금제, 탄소중립기본법과 같은 정책과 제도, 법률을 마련, 강화 및 활성화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시민들이 더욱, 지속적으로 환경과 기후 위기에 관심을 갖도록 하며, 기업의 무분별한 개발 등을 감독하여야 합니다. 환경 포럼, 강연, 토론회 등의 자리를 계속해 만들고, 아동을 포함한 시민들과 소통하며 시민들의 의견을 정책과 제도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그레타 툰베리’와 같이 학업을 포기하고 사람들의 지지를 얻어야만 기후위기에 목소리를 내

는 게 아니라, 모든 아동들의 목소리가 정부와 사회에 전달될 수 있도록 자리를 마련하고 지원해 주어야 합니다. 단지 경제 성장이 아닌 지속 가능한 경제 성장을 국가 비전으로 세워 환경 실태와 심각성에 대한 연구를 하고,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여야 합니다.

국가는 개인과 사회를 넘어 다른 국가에도 본 보기가 되어야 하고, 기후위기에 고통받는 국가들에게 도움을 베풀며, 국제회의에서 환경 문제에 대해 열정적으로 다루며 지속적으로 국제 사회에 환경의 심각성과 중대성을 전해야 합니다.

부 록

‘기후위기와 아동권리’ 온라인 설문조사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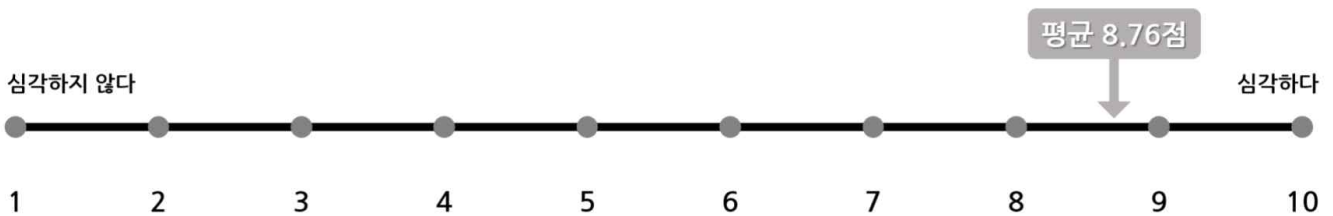
굿네이버스는 온라인 설문을 통해 만 18세 미만의 초·중·고등학생, 학교 밖 청소년에게 기후위기와 아동권리에 대한 생각과 의견을 물었습니다.

'기후위기와 아동권리' UN에 전하는 우리의 목소리!

나날이 심각해져 가는 환경오염 등의 기후위기는 인간의 일상에 큰 변화를 만들고 있으며, 이로 인한 어려움과 피해는 아이들의 삶을 더 크게 위협하고 있습니다.



1. 현재 내가 느끼는 기후위기의 심각도를 점수로 매긴다면 몇 점일까요?



1-1. 기후위기의 심각도를 평가한 점수에 대해 왜 그렇게 생각했나요?

봄에는 미세먼지로 온 세상이 뿌옇게 변하고, 여름에는 열대야로 더위가 심해지고, 겨울에는 눈이 오지 않고, 산과 들이 건조해져서 산불이 나는 건 지구 온난화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5년 전만 해도 기후위기의 심각성에 대해 머리로는 알고 있어도 피부로는 잘 느끼지 못했는데, 요새는 봄, 가을이 확연히 짧아진 것이나 여름이 견딜 수 없이 무더운 것 등 책뿐만 아니라 실생활에서도 체감할 정도로 많이 심각해진 것 같아요.

현재 코로나19도 그렇고, 환경오염으로 인해 빙하가 녹아 지구 날씨에 영향을 끼치고 있고, 미세먼지도 더 나빠지고 있어서요.

전 세계적으로 발생하는 이상기후와 현상만 봐도 너무 심각합니다. 이로 인해 발생하는 식량난과 또 다른 문제들도 많기 때문이에요.

2. 일상생활에서 기후위기와 관련해서 경험한 문제가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먼지 알레르기가 심했던 저는 매년 봄마다 미세먼지로 고생했습니다.
주사도 맞고 약도 먹으면서 마스크도 쓰고 다녔던 기억이 있습니다.

미세먼지 때문에 체육 시간이 있었는데도 체육을 하지 못했어요.

저희 부모님은 두 분 다 농사를 지으시는데요.
작물을 심거나 수확하는 시기에 있어서 절기를 따르는데,
상강이 되어도 추워지지 않거나 입춘이 지나도 따뜻해지지 않아서 곤욕을 치르곤 했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확실히 기후가 많이 변했다는 걸 느끼고,
결국 이상기후 때문에 농사가 잘 안되어서 피해를 보기도 했어요.

평소 먹고 싶은 과일들이 비싸졌고, 과일들의 상태도 좋지 않아지는 것을 봤어요.

3. 현재 기후위기와 관련해서 가장 걱정이 되는 부분은 무엇인가요?

우리나라의 계절이 이제 여름과 겨울 두 가지만 남은 것 같아요.
그리고 코로나19로 인해 실외활동을 하지 못하는 것이 걱정이 됩니다.

멸종 위기종인 북극곰이 사는 북극에 얼음이 녹아 동물들의 서식지가 없어지는 것이
가장 큰 고민 중 하나예요. 또 얼음이 녹으면 해수면이 높아지고,
육지 면적이 점점 줄어들어 사람들에게도 많은 피해가 발생할 것 같아요.

코로나19 같은 다양한 변이 바이러스가 퍼지는 것이 두려워요.

생태계가 파괴되어 바다에는 본 적 없는 해양 생물들이 출현하고,
잘 자생하고 있던 식물들이 시들시들 죽어가고 있어요.
지금에야 이름 모를 식물들이 죽어가고 있을 거라 안일하게 생각할 수 있지만,
앞으로는 흔한 양파조차도 자라지 못하는 나라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식량 및 지구 전체의 기온 상승, 홍수나 산사태, 산불 등이 걱정됩니다.

코로나19 이후 급격하게 증가한 일회용품 쓰레기 배출량이에요.

4. 30년 후를 상상했을 때, 지구 환경은 어떤 모습일까요?

마스크가 아닌 방독면이 필수이거나, 집집마다 음압시설이 기본적으로 설치되어 있어야 하는 세상이 될까 봐 걱정이 됩니다.

30년 후에는 땅이 다 오염되어 건물을 하늘 위에 지을 것 같아요.

기온 상승으로 빙하가 녹아 해수면이 상승해 전 세계적으로 수상가옥을 짓고 살아갈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서 바나나가 재배될 것 같아요.
미래의 아이들은 북극곰이나 펭귄을 용이나 봉황 같은 상상 속의 존재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어요.
벚꽃은 멸종된 식물이 되어 ‘이런 식물도 있었구나’ 하게 될 것 같아요.

배출된 수많은 쓰레기로 만들어진 땅에서 몇몇 사람들이 살아갈 것 같습니다.
바닷속 여기저기에 쓰레기가 있을 것 같고,
자연의 생물들이 피해를 입어 생물 다양성이 감소할 것 같습니다.

환경 정책을 빨리 펼치지 않는 이상, 이상기후는 더욱 많이 발생할 것이고,
봄과 가을은 사라져 여름과 겨울만 남을 것 같습니다.
맑은 날씨도 자주 보지 못할 것 같아요.

지금은 쉽게 구할 수 있는 쌀이나 밀 등의 작물 등 우리가 쉽게 접할 수 있던 작물이 멸종되어 식량난의 문제가 더욱 심화될 것 같습니다.

5. 기후위기로부터 지구를 지키기 위해 아동들이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요?

쓰레기 분리배출을 잘하고, 음식물을 남기지 않아야 합니다.
분리배출을 잘해서 재활용이 가능한 쓰레기들을 재활용하면
환경호르몬이 나오는 것을 줄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재활용 및 분리수거 습관을 들이고, 주변 사람들과 함께
실천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고 개인용 다회용품을 이용해야 합니다.
가까운 거리는 걷기를 생활화하고, 대중교통을 이용해야 합니다.

현재 발생하고 있는 이상 기후에 대해 집중하고 심각성을 깨달아야 합니다.

아동들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법을 제정하거나 정책을 만드는 것도 전부 어른들이 하는데,
아동들은 옳지 못한 행동에 대해
‘그런 일은 환경에 나쁘다’고 말하는 것 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기후위기에 대해 이야기한다 하더라도 어른들은 ‘어린애가 생각이 깊네.
우리 때에는 개울가에서 물을 떠먹을 수 있었는데~’라고 할 것 같아서 걱정이 됩니다.

6. 기후위기로부터 지구를 지키기 위해 기업이나 국가들이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국가에서는 탄소 배출을 줄일 수 있는 정책을 만들고,
기업에서는 친환경 및 신재생 에너지로 바뀌서 사용할 수 있도록 기술을 개발해야 합니다.

공장에서 나오는 가스나 유해한 배출물들을 줄여야 합니다.

사람들이 기후위기에 대한 심각성을 인지할 수 있도록
지구의 날 같은 환경 기념일을 매달 지정해서 한 달에 하루라도
실천할 수 있는 캠페인을 자주 만들어야 합니다.

산업용 전기 요금을 올려 기업들이 전기 사용을 줄일 수 있도록 해야 하고,
국가에서는 적극적으로 환경 문제에 대해 계속 이야기해야 합니다.
저는 뉴스에서 기후위기가 심각하다는 이야기를 많이 듣지 못했는데,
기후위기는 눈앞에 닥친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나라에서는 이 문제를 자꾸만 뒤로 미루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기업은 일회용품이나 불필요한 포장재를 줄이는 등의 친환경 제품을 만들고,
국가는 국민들에게 친환경 제품을 사용할 것을 권장해야 합니다.

7. 기후위기로부터 지구를 지키기 위해 전 세계 사람들이 노력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일회용품과 플라스틱, 비닐 등의 사용을 줄이고, 쓰레기 분리배출을 잘 해야 합니다.

어떻게 해야 기후위기로부터 지구를 지킬 수 있는지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는데, 문제는 실천인 것 같습니다.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닫고 함께 행동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지구가 아프고 병들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어야 합니다.

나의 일이라 생각하며 다음 세대들을 위해 문제를 개선해야 한다는 책임감을 지니고 환경을 지키기 위한 활동들을 실천해야 합니다.

세계적으로 기후위기에 대처하고 기후위기를 예방할 수 있는 협약을 체결하고,
기후위기에 대한 회의들을 자주 하며,
이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정해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합니다.

환경 보호 단체가 지구 환경을 지키는 것에 앞장서야 합니다.

전 세계 사람들은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바라만 보는 것이 아니라 함께 참여하고 실천해야 합니다.

기후위기 대응 아동권리옹호 토론회

발행 2022년 4월 20일 (수)
발행인 김웅철
발행처 사회복지법인 굿네이버스
전화 02-6424-1735
이메일 childrights@gnk.or.kr
홈페이지 www.goodneighbors.kr

